(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76 1981년11월21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November 21. 1981

NOV 23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주정부 압력으로 새로 헌법초안

여성 평등권등 약화

트루도 유감표명, 퀘벡·원주민 반발

(오타와) 퀘벡을 제외한 9개주와 연방정부와의 극적인 합의로 새로 작성된 헌법안은 2주일여의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20일 부터 의회의 최종토의에 부쳐진다.

◇18일 기자회견하는 트루도 수상. 정치가로서 자신의 필생의 목표였던 헌법의 캐나다화가 이루어질날이멀지 않다.

18일 기자회견에서 트루도수상은 주수상들의 합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원안이 크게 수정되고 난도질당한 것에 서글픔을 느끼지만 그런대로 헌법초안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까지 가장 문제됐던 부분은 여성의 권익에 관한 남녀동등조항과 인디안 등 원주민들의 권익에 관한 명시였다. 이 두가지 조항에 대해서 주정부는 이를 적용 또는 묵살할 권한을 갖는다. 트루도수상은 또한 10개 주정부중 유일하게 개헌안에 반대, 서명을 거부한 퀘벡주에 관해 "퀘벡주민들을 짓밟는 것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빠르띠·퀘벡꼬아(퀘벡주의 현집권당)이다. 비록 주정부가 퀘벡민을 내팽개치더라도 연방정부는 결코 퀘벡을저바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퀘벡주가 이미 거부한새 헌법안에 따르면 각주는 헌법상 문화, 교육분야에 관한 수정안을 채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퀘벡주 르네·레베끄수상은 이번 헌법안중 언어교육에 관한 내용이 퀘벡주 정부의 언어법(제 101 호법)과 상치된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 했었다. 헌법안이 영국의회를 거쳐 채택될 경우 퀘벡주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에 관한 동등조항은 종래연방법에 명시된 남녀차별금지 조항과 별도의 것으로 최후순간까지 각 주정부는 이 동등조항을 놓고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고, 또 많은 여성권익단체들이 트루도수상의 원안대로 동등조항을헌법안에 포함시키라고 발버둥 쳤으나 결국 사스카추완주와 노바스코시아 주가 제안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를 보았다.

의회의 최종토의에 상정된 새 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권법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지난겨울 의회의 합동위가 초안한 것과 같으나 기본권, 법적권한, 남녀동등권에 관한 부분은 연방의회나 주정부가 헌법의 내용과 상치되는 법 안을 통과, 효력을 상쇄 할수있다.

◇앞으로의 개헌은 캐나다 국민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 (이는 지난 봄 퀘벡주까지 포함된 8개주가 초안한 수정안의 내용에도 포함돼 있었다.)이 귀절에 따르면 적어도 3개주가 독자적인 입장을 취할수가 있다.

원주민 항의운동·자녀등교 거부등

노스·웨스트·테리토리(속령)의 원주민들은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헌법초안에서 삭제된데 항의, 자녀들의 등교를 2주째 막고있다.

악틱·베이 학교의 경우 135명의 재학생중 등교한 학생은 겨우 5,6명 이였다.

한편 알버타주의 11 00 여명 원주민 학생들도 9일 전원 등교를 거부했다.

헌법 통과되도 은퇴 고려안해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을 갖는것을 정치가로서 필생의 목표라고 늘 공언해온 트루도 수상은 자신의 목표달성이 눈앞에 다가온지금 과연 은퇴를 고려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나는 몬트리얼에 있는내 집을 손 보고 있다. 만일내가 오타와 생활을 청산하면 더 행복해 지리라는확신이 설때까지는 내 일에 충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 은메달2개에 머물러

캐나다 금메달1개 획득

(몬트리얼=정관성 지국장)제2회 세계월드컵복싱대회결승전에 진출한 한국의 허영모선수와 장임석선수가 판정으로 각각 져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라이트플라이급의 허영모선수는 18일 몬트리얼미우리스체육관에서 거행된 결승전에서 불가리아의 이스마일·무스타호브선수와 맞서 잘 싸웠으나 5:0 판정으로 졌다. 1회전에서 허선수는 빠른동작으로 무스타호브에 접근, 잽을 노렸으나 득점의 기회를 못잡았다. 2회부터 무스타호브는 재빠른 푸트·웍으로 허의 주위를 돌면서 유효타를 날렸다.

한국의 마지막 남은 호프 밴탐급의 장임석은 콜럼비아의 미구엘 마타로마와의 대전에서 레프트, 라이트스트레이트등 좋은 공격으로 열전을 벌였으나 3:2로 판정패 은메달로 만족해야했다.

게임후 장선수는 "최선을 다했다. 84년 LA올림픽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천복한국선수단장은 "지역싸움에서 진 것같다. 선수들은 실망하지 말고다음기회를 노리기 바란다. 또 그동안 매일 경기장에 나와 성원해준 김창훈총영사, 박종구한인회장등에감사드린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미들급인 토론토의 설리반선수는 모스코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큐바의 마티에즈를 맞아 1회전에 넉다운을 당했으나 곧 자세를 회복 2,3회전을 압도적으로 리드, 심판전원일치의 5:0판정승을 거두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캐나다가 세계대회상 복싱분야에서 금메달을 따기는 1932년 LA올림픽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에 앞서 지난17일 열린 조인식에서 WBC슈퍼플라이급 챔피온 김철호가 도전자 마루야마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대전에서 김은 9회 TKO로 3차 방어전 승리로 이끌었다. (관련기사 2면)

—社 告—

감사말씀

지난 11월14일(토) 하오 있은 한국일보사 사옥이전파티는 3백여 교민및 각계인사들의 참석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읍니다.

바쁘신 중에도 직접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고, 또한 화환, 금품등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사 직원일동

社說 당당한 대결

— 실협선거에 거는 기대

한인실업인협회의 회장단 선거전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11월26일의 총회석상 판가름을 앞두고 임철원씨팀과 차선경씨팀은 각기 전열정비, 표밭 다지기등 재점검과 최후전략 펴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한인사회에 있어서의 실협의 비중과 1년예산 $15만의 큰 규모등으로 보아 600명 회원만의 범 위를 넘어서서 전체 교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뛰기로 나선 이상은 이겨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염원이다. 하지만 이기되 정정당당한 대결과 끝까지 양식(良識)과 정도(正道)를 굳게 지키는 지도자다운 자질을 갖추면서 결전에 임해야 비로소 그 중책을 맡기에 어울리는 인물이라 하겠다. 만에 하나 승리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는 애초부터 자격 상실자로 지탄 받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 맞선 양팀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인신공격이나 중상모략등 치졸한 속물근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교민사회에 긍정적 반응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실협선거가 끝까지 파인·플레이 정신이 지속되어 양쪽 다 승부를 초월한 당당한 심지(心志)를 보여주고 앞으로도 계속될 한인사회 다른선거의 모범이되어 민주주의 훈련의 본보기가 되어 주기 바란다.

이번 양팀의 대결의 특징으로 과거의 단체들에 흔히 있어온 감정대결이나 자리다툼보다도 이념(공약)대결의 양상이 짙어 흐뭇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 공약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선심약속같은 인상을 풍기는 조항도 없지 않음을 보겠다. 인기작전이나 표 얻기 위한 공수표같은 약속나열은 굳이 삼가야 하며, 다행히 자기측이 당선된다면 양심을 내세워 공약한 바는 기필코 실천에 옮겨, 결코 득표 목적의 헛약속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의 본모습이요 공신력을 기르는 길이며, 권리와 책임을 아울러 다하는 중책에 어울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후보팀 측근에서는 본보가 일부 유권자들의 이번 선거에 대한 여론을 청취, 보도한데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의 주관적 해석으로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언론이 여론을 미리 조사해 보도함은 당연한 권리요, 또한 사명에 속하는 일이니 그것이 제3자의 입김이나 작용에 좌우될 수 없는 독자적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이번의 본사 여론조사는 편중이나 편견이 없는 객관적 공정성을 가지고 엄정한 중간입장에서 수집·보도한 것이며, 조사대상에 오른 유권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자료이므로 본사로서는 보다 떳떳한 행위였음을 재삼 천명하는 바이다. 그것을 어느 한쪽을 뒤미는 듯이 왜곡논평하는 이가 있다면 그 기사를 정필(正筆) 아닌 곡필(曲筆)로 곡해하는 지나친 주관 아니면 괴집기 위한 괴집음의 악취미에 속한다 하겠다.

참된 지도자상 — 사내는 항상 떳떳해야 하는 법이다. 더구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인물은 보다 당당하고 틀이 크며, 넓고 깊고 멀리까지 내다보는 혜안(慧眼)과 도량의 소유자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두팀의 계속 분투를 축원하며, 당선팀은 오늘날 괄목할 발전을 이루면서 있는 실협살림을 더욱 현실적이며, 더욱 효과적이게 꾸려나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촉구하는 한편, 불행한 낙선팀에 대해서는 승자의 아량을 보여, 협회내의 자리를 안배해 같이 봉사하는 길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또한 낙선팀은 시급히 패배의 상처를 씻고 일어나 실협발전에 동참하는 대국견지에서 머리와 땀을 아낌없이 보태주는 성의를 가져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민도파
454 BLOOR ST. W
B. 536-4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SunLife OF CANADA
취 급 보 험
ㅁ생명보험
ㅁ연금제도
ㅁ교육보험
ㅁ그룹보험
ㅁ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ㅁR. R. S. P

김 신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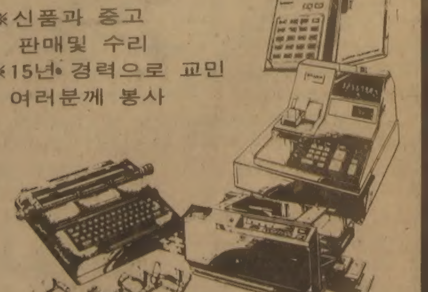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 B)922-3111 R)439-8885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554

시카고교포여인 딸과 동반자살

어머니 한여사 정신분열증인듯
산드라양 교살후 자신도 목매

▲친정인 최창수씨 자택의 응접실 탁자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숨진 모녀의 사진액자. 숨진 산드라·한양(오른쪽)의 생전의 웃는 모습이 천진하기만 하다.

(시카고지사)

친정을 방문하여 빈집을 지키고 있던 교포여인이 3살난 딸과 함께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5201 W.포스터에 거주하는 최창수씨(베다니 교회 장로)의 일가족은 10일상오 9시 드레이크 &선 장의사에서 열렸던 최씨의 모친 양금이씨 장례식에 참석한후 하오1시경 자택으로 돌아왔는데 집을 지키고 있던 최씨의 차녀 한인식 부인이 한씨의 3살난 딸 산드라·한양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산드라·한양은 침실의 침대위에 반드시 누워 숨져 있었으며 한인식부인은 목욕탕에서 목이 매여 숨져 있었는데 외부침입의 흔적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2구의 시체는 쿡·카운티 검시관실로 옮겨져 로버트·커쉬너 검시관에 의해 부검이 실시됐다.

검시결과 한부인은 자살로, 산드라·한양은 목이 졸려 죽은 타살로 판명됐는데 쿡·카운티 검시관실 한 당국자는 12일 "검시결과로 미루어 보건대 한 부인이 딸을 먼저 교살한후, 자신은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검시관실의 부검 종결에 따라 모녀의 시체는 11일 상오 몬트로즈의 벤슨장의사로 옮겨졌으며 12일 상오9시30분 영결예배가 끝난후 이들모녀는 어빙·파크 묘원에 안장됐다.

숨진 모녀의 유가족들에 따르면 죽은 한부인은 약1년전부터 정신 분열증세를 보여 왔다고 한다.

한부인은 지병인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위해 시카고지역의 여러 병원을 두루 돌면서 진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데니스·굳멜 목사의 안수집회에도 참석했었다고 한다.

숨진 한씨는 약 5년전에 도미하여 남편인 한상도씨(미국무역회사 근무)와 결혼, 슬하에 산드라·한양외에 1살 먹은 아들을 1명 두고 있는데 젖먹이 아들은 사고 당시 고모집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그런데 숨진 한씨는 시카고 교계의 최모 원로목사의 손녀로 알려졌는데 최목사는 12일 "사고당일 장례식에 가면서 몸이약한 손녀를 집에서 쉬게 한 것이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손녀를 혼자두고 집을 비운 것이 큰 실책"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김철호 9회TKO승
WBC 3차 방어전 성공

(부산 19일=연합)세계권투위원회(WBC)수퍼·플라이급 챔피언인 한국의 김철호선수는 18일밤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도전자 일본의 자칼·마루야마와 맞서 9회 TKO승으로 3차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했다.

승리후 김선수는 "한달동안 강훈련을 한 덕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전에 임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마루야마는 「김」의 강력한 라이트, 레프트훅과 머리에 연달은 잽을 맞아 두눈이 부어 올라 더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멕시코의 레이솔리스 주심은 9회 1분12초만에 경기를 중단, 의사에게 마루야마의 눈의 상처를 보인후, 김의 승리를 선언했다.

20살의 김선수는 황소처럼 파고드는 스타일의 접근공격과 방어를 겸비한선수이다.

김선수는 내년 1월2일 대구에서 일본의 코키·이쉬이 선수와 4차 방어 전을 갖는다.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 쉽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단 편〉 모래성 ⑨

박 성 민 (문협회원)

기영이 여지껏 알기로는 세상에서 현정이네 집이 제일 큰줄 알았는데, 그 보다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 기영은 엄마에게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보았다.

"엄마! 세상에 저 깍쟁이네 집보다 더 큰 집이 있어?"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러면서 엄마는 기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기영에게라고 할 것 없이 혼자 중얼거렸다.

"원 세상에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까…."

현정이네가 이사간 후 동네애들은 더 이상 기영을 놀리지 않았지만, 그는 또한 더 이상 동네애들과 어울리는데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정말로 오래된 이야기였다. 돈이 돈을 벌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돈을 벌든지 기영은 상관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말의 뜻을 그는 이제는 알 수 있었지만….

기영은 판자문 사이에 서있던 현정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가난에 찌들은 탓도 있었지만 지금에 생각하니 그녀는 먼 나라의 공주에 비교할만큼 예쁜 얼굴이 아니었다. 눈부신 모습은 더욱 아니었다. 어렸을 적 처음으로 보던 현정이의 모습이 왜 그렇게 눈이 부셨는지 기영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그녀가 아래위로 하얀옷을 입었기 때문이었을 것같았다. 아니면 지는 해를 뒤로 두고 서있었던 때문이었던 것같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크게 속은 것같은 느낌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가슴 깊은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 허물어져 버리는 소리를 들었다.

(모래집이었을까…)

순간 기영은 오늘 퇴근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소집장을 돌린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녀는 그가 찢어버린 빨간 가방 속의 공주로 남아있어야 했다. 쓰러져 가는 판자집에서 세파에 시달린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지 말아야 했다. 기영은 어쩜 내일 당장이라도 한국을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기영은 테이블 위에 포개놓은 손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가 술이 취했기 때문은 절대 아니었다. 한동안 그렇게 있던 기영은 팔에 닿는 물방울의 차가움을 느꼈다. 그 물방울의 감촉이 가슴 깊이까지 전해져 오자 언젠가 서럽게 울던 날의 기억들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던 얼굴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어둠같은 과거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떠올랐다.

"손님, 일어나세요."

어느틈에 그러고 있는 기영이, 술에 취해서 그런 줄 알고 주인아주머니가 다가와서 기영을 흔들었다.

"괜찮읍니다. 술이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니까요…."

고개를 든 기영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태도로 서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흐리게 들어왔다. 기영은 자세를 바로잡고, 그가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은 잔을 단숨에 비우곤 또 한되의 막걸리를 주문했다.

"약주가 과하신 것같아요."

그 아주머니는 정말 염려스럽다는 투로 말했다. 마치 기영또래의 아들이나 동생이 있는 것처럼….

"괜찮대두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돼서요."

그제서야 그 아주머니는 자리를 떴다. 팔에 붙어있는 노란 완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방위복을 벗을 때가 되었다. 근래에 그를 구속하였던 방위복… 기영은 이제는 더 필요 없는 노란 완장을 떼어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재봉틀로 튼튼히 박혀있는 완장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 전부터 그렇게 붙어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붙어있어야 한다는 듯이….

그것은 흡사 부끄러운 그의 과거와 같은 것이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더욱 생각이 나고, 떨구어 버리려고 아무리 뛰어도 발밑에 붙어있는 그림자같은 것이었다.

갑자기 국민학교적 뒷산에 묻어버린 주머니칼이 생각났다. 그 칼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렵지 않게 노란 완장을 떼어낼 수 있을 것같았다. 과거와 기억하기 괴로운 부분을 싹뚝 도려낼 수 있을 것같았다.

아줌마가 새로 가져다 준 술을 마시며 기영은 국민학교적 그 자신이 왜 동식이의 등을 찌르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단지 그의 비겁 때문이었다. 기영은 그 자신의 비겁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 아래서 얼마나 많은 타협과 굴복을 해왔던가? 마치 잘 훈련된 졸병마냥, 그는 그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구별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왔던 것이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시민이었고, 국민이었다. 그것이 그의 되풀이되는 생활의 중심이었다. 생활철학이었다면 또 철학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자기자신을 속여 왔던가. 쉽고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변명 아래서… 간혹 그럴듯한 중국영화나 악당을 물리치는 서부영화 따위를 보고나면 휘어지느니 차라리 부러지는, 앞과 뒤가 분명한 인간이 돼보자고 가끔은 일기장이나 노트에 적어보곤 했지만, 그것이 다 그렇고 그런 소리었다. 또한 기영이 검은 교복을 입었을 때, 너무나 많은 제약 속에 그냥 생각해 보던 꿈이나 공상같은 이야기였다.

그가 제복을 벗고난 후에 심지어는 젊음이라는 변명 아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을 때조차도 얼마나 많은 타협을 지으며, 얼마나 자기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는지 누구보다도 그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는 더없이 맑아야 할 어린 시절조차도 그는 자기자신을 속였다. 딱 한번 거부의 자세를 지어본다는 것조차도 애초의 목표와는 달리 고작 그의 속마음 과는 다른 현정의 고운, 가방을, 왕자님의 얼굴을, 아무런 자기보호의 수단도 없는 그 잘 생긴 얼굴을 갈라놓은 것 뿐이었다.

기영은 그가 이민을 떠난다는 것이(좀전에 생각했던,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과감한 도전인지, 안일한 기대에 의한, (뻔히 속을 줄 알면서도 기대해 보는) 도피인지 그는 자신이 없어졌다. 나아가서는 그것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도약인지, 늠름한 왕자의 얼굴도 아닌 자신의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는 행위인지 도대체가 자신이 없어졌다.

그가 왜 한국을 떠나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도 있어야만 했다.

기영은 그가 중3때 부터인가 소위 말하는 철이 조금은 들 때부터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장래희망을 가지게 된 때부터 고작 생각했다는 것이 고등학교 국어선생이 되는 것이었다. 거기다 욕심을 내어 본다는 게, 신춘문예에 당선이라도 되어서 신문에 사진 한장 나본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그가 쫓아다니던 여학생들이 특히 현정이가 이미 이미 결혼따위를 해버린 아주머니가 되어 그를 생각하고, 비록 잠시겠지만 어렸을 적 생각을 하며 그가 아직도 이땅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줄 거라는 당치도 않은 이야기가 기영이 지어본 꿈의 최대였다.

그러한 자신이 태평양을 건너 낯선 대륙에서 무얼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할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는 그가 보아오던 영화 속의 금발의 미녀를 먼저 생각하였다. 마치 그곳에 가면 그 미녀의 상대역을 하던 코 높은, 파란 눈동자의 미남배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커다란 착오였다. 그는 먼 대륙에서의 생활이 미제 쵸코렛마냥 달콤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들의 꿈이 현실로 변하는 곳은 없다. 꿈이 꿈으로 남아있을 때, 기대가 기대로 남아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기영은 이제 그를 기다리는 생활이 그렇게 미제 쵸코렛마냥 달콤하지도 빛깔이 아름답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모래성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끝)

해외 걸작만화

"If you're NOT planning to buy a pet, what's the sign for?"
『개도없는데 저런 푯말은요?』 <개조심>

실협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말씀

임철원 회장후보

하소영 부회장후보

최복기 부회장후보

자꾸만 침체되어 가는 카나다 경제현실에 날로 치열해가는 수퍼마켓간의 가격인하 경쟁은 우리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소규모 코너 스토어에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의 살길을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실협」의 기치아래 한데 뭉쳐서 우리의 이익증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함께 투쟁해 왔으며, 우리의 단결된 힘의 과시로서 명실공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읍니다. 협회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역대집행부및이사진의 노고와 협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이 협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읍니다.

그간 협회에서 전개해왔고, 또 시도하여왔던 회원의 실질적인 이득을 위한 사업들이 전체·회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점도 있으나 하루아침에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인내와 꾸준한 협조를 하여주신·회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년전에 무에서 시작된 협회가 년간예산 15만달러에 달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있는 우리의 모임체로 성장한 이제는 드디어 실질적인 혜택을 추구해야하는 도약단계의 문턱에 도말한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협회에서의 실무경험과 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2년간 건전한 협회운영과 회원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창설을 목표로 정·부회장 선거에 나섰읍니다.

협회의 발전과 회원각자의 권익추구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의 기여라는 무거운 짐을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저희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만은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 실질적인 이익증대를 위한 사업

가. 협동조합의 설립및 운영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경제적 약자인 우리를 어느 대기업이나, 도매상, 공급자, 생산자가 도와 줄 것을 기대할수는 없읍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돌파구를 「조직적인 공동구매사업」에서 찾아야 되는 바, 지난 수년간의 조사 연구결과 온타리오 주법이 보장해주는 「협동조합(Cooperation Co-Op)」을 설립하는 길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각종 관계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사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연구, 검토해 왔읍니다. 우리 전체회원이 기존 도매상에게 주는 순이익은 년간 500만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회원각자의 투자로써 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공동구매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막대하며 그 이익은 바로 조합원인 회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청사진은 이미 나와있으며 조합원 출자금외에도 추가소요 재원조달등에 있어서도 이미 그 가능성을 타진해 놓고 있읍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때 우리 회원각자의 이익증대는 물론 재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주요 취급품목의 생산시설을 조합산하에 설치할 수도 있읍니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민족자본이 형성되면 우리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한글교육을 위한 기금및 각종 한인문화사업이나 행사등의 지원등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재산이 되지 않겠읍니까? 저희는 협동조합의 임기내 출범을 목표로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 T. T. C. 티켓 판매수당의 조정

판매수당 1%인 T. T. C. 티켓판매는 독점기업의 횡포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거스름돈 한번 잘못내주면 하루종일 헛장사 하게되는, 너무도 상식밖의 일방적 강요인 판매수당의 재조정을 위한 협상의 시도와 항의로써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읍니다.

다. 공병 취급수당 취득

회원가게의 가장 고질적이고 불공평한 문제가 바로 빈병취급입니다. 회원 가게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이의 분류를 위해 막대한 시간을 빼앗겨야 하면서도 무보수의 노력제공이 강요되며 트럭 드라이버 와의 분쟁의 불씨가 되어 왔읍니다. 저희가 현집행부에 재임하는 동안에도 수차 관계장관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 해온바 있으며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우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강력히 추진 할 것입니다.

둘째 :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 권장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주변지역사회를 도외시 하고서는 사업을 해낼 수 없읍니다. 지금껏 소극적인 지역사회에의 봉사참여에서 벗어나 전체 회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실협회원의 이메지는 물론, 나아가 전체 한국계 케네디언은 카나다 사회에서 공존하려 한다는 인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 방법의 예로서는 협회가 스폰서가 되어 어린이, 청소년합창단의 양노원, 교도소등 위문공연을 추진하겠으며, 각 회원가게와 인근 어린이 스포츠팀(하키, 축구등)의 스폰서를 서 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줄 수도 있겠읍니다.

나. 상도의 확립을 위한 시책

상도의 문제중 교포업소끼리의 과당경쟁등 대내적인 문제는 협회에서 조정, 중재해 보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대 고객, 공급자, 배달원등 가게 경영중 필연적으로 상대하여야 하는 대외적인 상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항에 말씀드린 이메지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에의 봉사로써 대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도 자체 홍보활동을 통해 주의를 환기 시키면서 부당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읍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많은 협회 사업들을 계속 밀고 나갈것이며 또한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회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성실히 실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협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운영의 토대가 되는 선의의 경쟁에 의한 집행부의 선거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잡음, 후유증등 일부의 예상이 공연한 염려에 지나지 않도록 자중할 것이며, 선거전의 승패를 불문하고 다함께 손잡고「바람직한 협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회장단 입후보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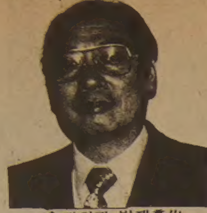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회 장 후보 임 철 원(42세) 현 부회장
부회장 후보 하 소 영(43세) 현 회원
부회장 후보 최 복 기(36세) 현 총무

환희와 감격의 대곡

제1회"메시야" 대연주회에 부쳐

박재훈 (한인합창단 지휘자)



◇자휘자 박재훈씨

우리는 어느덧 이해의마지막 고갯마루에 서있는자신들을 보면서 새삼스러이세월이 그처럼 빨리 흘러갔다는 것을 느끼며, 흘러간 세월을 아쉬워 합니다.

캐나다 이민의 매일의고된생활 한 구석에서나마우리는 노래하면서 이 고달픔을 기쁨으로 바꾸면서살아오기 벌써 3년째로 접어듭니다.

금년 크리스마스 계절에는 이 노래하는 기쁨을 온동포들에게 알려주며, 크리스마스의 감격과 구원의소식을 전해주는 헨델의 <메시야>를 선물하기로작정하고,「제1회 메시야대연주회」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 행사는 제1회, 2회 로 끝나는것이 아닌, 앞으로100회, 200회를 내다보며, 첫발을 내딛는 일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에는 메시야연주 100회의 기록이 넘는 합창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메시야 음악이냐?"라고 묻는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음악에서 우주와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보게 됩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땅에 보내셔서이룩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의숨결을 오늘날도 우리는 이음악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메시야>음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과거의 어느 사건들을 조리있게만나열해 놓은 노래묶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메시야>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이 음악을 통해 들려오는 모든말씀(성경귀절들)이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이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힘과 감격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영과혼을 새롭게개혁시키는 능력을 지닌 영원한 승리의 찬가, 그것이 곧<메시야>음악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되면 이 음악이 세계에서 제일많이연주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우리는 이 음악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메시야예수가 오시리라는 예언과, 그의 겸손한 탄생과 이 를 둘러싼 일들, 즉 천군천사들의 찬미와 땅위에서의가난하고 낮은 목자들의 화답,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의 부르시는 음성,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지시고 죽음의 고갯길로 끌려가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의 고독과 슬픔에찬 절망된모습, 죄인들의 빈정대는 소리, 그의 죽으심, 그의 찬란한 부활과 영원한 승리, 철창을 가지고 임하시는 심판의주 메시야, 왕의왕, 주의 주로서 온 우주를 성부하느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영원한 메시야의 권위와영광, 그리고 이에 화답하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느님 앞에 드리는 위대하고 영원한 찬양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감격스러운 장면과 놀라운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1741년, 즉 지금으로부터 240년전, 가진 고통을 겪고있던 헨델의 손에 이 메시야의 대본이 들려졌을때, 그는 숨쉴 사이도 없이 이 음악을 쓰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22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그 초고를 완성할 수 있었읍니다.

사실 웬만한 음악인은22일동안에 이 작품을 옮겨쓸수도 없는 분량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펜을 잡았고, 음악은 성령께서 그 펜을 통하여 흘러나오도록역사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중의 하나입니다.

헨델은 북부독일 할레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음악은 바하의 음악과는 대조적인 거의 이태리 음악의 영향을 받아 간결하고 밝으며, 구김새 없이 흘러넘치는 율동을 지닌 선율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부분까지도 밝음을 잃지않은 창조성을 늘 지니고 있읍니다. 이에 비해 수난음악의 거인 바하는 헨델과는 반대인 단조성을 늘 지니고 있어 듣는이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어둡고 슬픈 감정으로 사로잡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양거두의음악으로 인류에게 크게 축복을 해 주셨읍니다.

이해도 거의 저물어가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 한해의 마지막장을 장식하는우리교포사회의 큰 행사에동참하셔서 노래하는 이나, 듣는이나 모두가 이 거대한 음악을 통하여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된평화의 역군으로 거짓 없는 사랑의 봉사자들로 서서겨레와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힘차게 일할 수 있는새로움과 힘을 부여받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일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주의자로 낙인찍어

이양섭씨, 북한방문 경위설명

토론토교포 이양섭(45)씨가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 21일간 머물면서 노모, 동생들과 상봉한 뒤, 11월1일 무사히 돌아왔다.

◇이양섭씨

블루어거리(Bloor & Clinton)에서 도넛샵을 경영하는 이씨는 지난 14일 상오 11시 교포언론인과블루어 번영회측 인사 10여명을 가게로 초청, 자신의 북한방문경위를 설명했다.

노모(96세)와 함께 북한에 있는 남동생 성섭(36), 누이동생(42) 1명,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둘째 경섭씨, 그리고 6.25사변때 폭격으로 (당시2살) 입은 상처로 정신병을 앓다 가 끝내 28세의 나이로 3년전 사망한 막내등 모두 5남매의 맏인 양섭씨는 1.4후퇴때 아버지와 동생 경섭씨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씨는 10년전인 71년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시민권을 소지있고 토론토에는 부인과 2남2녀가 있다

이씨는 북한 방문후 토론토에 돌아오자 연방경찰(RCMP)이 수차례 방문했을 때도 밝혔듯이 북한방문이 결코 정치적인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방경찰의 한 간부는 "당신은 캐나다 시민이니 신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했다고 이씨는밝혔다.

이씨는 토론토총영사관의 A영사도 찾아와 북한실정에 관해서 침묵을 지켜주면 북한방문 사실을 비밀로 지켜준다고 해서 끝까지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또다른 영사가 자신의 북한방문 사실을 발설, 자기 입장이 난처해진 바람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 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곳에서 살 생각이 없다. 그곳 체제중 느낀 점은 내자신이 개인주의적이란 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함북 청진에 외화상점이있었고, 국수집, 남새(야채)집이 있었다. 외화상점은 일본 여행자들이 많아 생긴 것으로 들었다. 세이코시계 하나를 60불정도 주고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신문은 자주 보지 않았으나 우연히 본 날자에 최홍희씨(토론토교민, 전육군소장)의 방문일정등이 기사화 돼 있었고 맥주가 흔했고 특히 용성맥주가 유명했다고 전했다.

방문경위

이씨의 북한 방문은 1년전 어머니와 동생을 보고 싶던차에 이미 북한에 다녀온 모교포를 만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건네주었고 수개월뒤 북한 해외동포위원회) 발신의 편지에서 동생 성섭씨의 사진과 편지가 동봉된데서 비롯됐다.

이씨는 동생의 편지를 읽은 후 눈물로 잠을 못 이루다가 단독으로 지난 10월2일 토론토를 출발 뱅쿠버를 거쳐 북경착 북경대사관에서 여행증을 발급받고 북한의 "조선민항" 비행기편으로 10월6일 평양에 도착했다. 청진서 온 동생과 남, 녀 각 1 명씩의 안내원이 공항에 마중나왔다. 호텔<보통강>에여장을 풀고난 뒤 역시 동생, 안내원들과 함께 평양의김일성 탄생지「만경관」, 혁명박물관등지를 관광한 후 6일 저녁 청진으로 향했다. (이씨의 고향은 함경도 북청이나 모친과 동생은 청진에 거주). 동생집에 도착하니 5층 아파트에서 모친(69세)과 고모등 약 50여명의 친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대의 젊은 어머니의 모습만을 간직하고 있던 양섭씨를 눈물로 반기는 어머니의 모습은6.25때 유엔군 폭격으로 받은 상처로 90도로 등이 굽은 노파로 변해 있었다.

사흘간 그곳에서 묵으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원래 2주이상 가족들과 보내기로 한 이씨의 계획은 안내원 때문에 꺾였다. 안내원은 이씨가 1.4후퇴때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만 남기고 아버지와 동생1명과 함께 남으로 빠져나온 개인주의자요, 자유분자라는 말로 이씨를 공박하여 관광을 강요했다.

이씨는 마음을 바꿔 안내원을 따라 금강산, 묘향산, 주을온천, 개성등 여러곳을 돌아보고 평양도착 21일만인 10월27일, 원래 예약한 11월2일자 비행기표의 예정을 앞당겨 북경으로 향했다.

북경에서 비행기시간이 잘 맞지 않아 닷새동안 머물며 관광을 하다가1일 토론토에 돌아왔다.

加 스타우트 우승차지
東京 국제女子 마라톤

(동경)캐나다인 린다·스타우트가 15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여성마라톤에서 우승했다.

23세의 스타우트의 이날 기록은 2시간34분28초였다.

2등은 미국출신 제인·와이프(25세)로 2시간38분20초를 기록했다.

일본 최우수여자 마라톤선수인 사사키 나나에는 2시간45분53초로 5등에 머물렀다.

經濟문제 案內책자 홍수

소비자에게 도움안되는 册들도 많아

경제 나빠지자 우후죽순처럼 쏟아져나와
대부분이 혼란과 파멸예고·독자들 자극 위험

믿을만한 著者의 책을고르는 지혜가 필요해

경제가 나빠지자 소비자들에게 저축, 소비, 융자, 보험, 투자등 재정문제 전반에 걸쳐 조언을 해주는 새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많은 책들이 혼란과 파멸을 예고하고 있다. 비즈니스책들은 통화제도가 붕괴된 다음 곤란한 시기가 다가올 터이므로 이에 대비하라고 경고, 위기에 살아남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책들은 재정적인 자기방어책을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책들은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재정문제전문가들은 경제관계 베스트셀러들이 쓸모없는 책들이라고 낮추어 평가하고 있다.

이보다 지나친 경우에는 베스트셀러들이 해로운 책들이라는 악평을 받고 있다. 이유는 독자들을 놀라게 만들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도록 자극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DC의 주리아·월쉬·앤드·손스 투자회사의 알렉산드리아·암스트롱은 경제문제안내책자들이 일반적으로 모두 위험스럽다고 평하고 있다.

달라스의 재정전략회사장인 알란·골드파브는 베스트셀러 순위를 오히려 거꾸로 매겨야 한다고 농담할 정도.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책들도 있을 수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자들이 개인적인 돈관리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책이란 한권도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있다. 그러므로 여러 책들을 읽되 어느 한책을 지나치게 심각히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관계 안내서를 보완시키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권하고있다.

요점은 안내서가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사람에게는 좋은 해결책을 제공하는 책이 저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아닐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은 일종의 도구라고 전문가들은 표현하고 있다.

시티뱅크와 체이스·맨하탄등 은행들과 개인재정문제상담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정문제 안내서들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고 있다.

▲일반적인 안내서

—제인·퀸의 「만인의 화폐 안내서(Everyone's Money Book」저축, 소비, 돈벌기, 융자, 빌려쓰기, 보험, 이사, 이혼, 투자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베니타·캐스펠의 「1980년대의 화폐역학(MONEY Dynamics For The 1980s)」. 각종도표, 복습문제, 부록등을 갖춘 재정문제안내서로서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이해할수 있는 책이다.

—실비아·포터의 「실비아·포터의 1980년대 새화폐안내서(Sylvia Porter's New Money Book For The 80's)」. 특별기고가인포터는 이책에서 주택구입, 융자, 교육, 유언서작성, 공채와 시장투자등을 다루고 있다.

—빅터·홀맨과 제리·로젠블룸의「개인재정 계획(Personal Financial Planning)」. 대부분의 재정문제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읽기 쉬운 재정문제안내서이다.

▲투자

—벤자민·그래함과 공저자들의「유가증권분석(Security Analysis)」. 증권분석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다.

—버튼·말키일의「인플레를 극복하는 투자안내서:1980년대를 위한 승리의 전략(The Inflation Beater's Investment Guide, Winning Strategies For The 1980s)」. 광범위한 기술적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방법을 다루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대이비드·다스트의「완전한 공채안내서(The Complete Bond Book)」. 공채와 화폐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이다.

—키릴·소코로프의 「사려깊은 투자가를 위한 증권시장 안내(The Thinking Investor's Guide To The Stock Market)」. 다른 증권시장안내서들보다 약간 덜 전문적인 안내방법을 택하고 있다.

—조지·크리스티와 존뮬렌데닌의 「투자입문서(Introduction To investments)」. 체이스·맨하탄은행이 추천하는 투자입문서이다.

—빅터·하퍼의「투자, 생산품, 서비스의 안내서(Handbook Of Investment, Products And Services)」. 모든 종류의 투자상품의 생산유통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존·트레이시의「재정보고서를 읽는 방법(How To Read A Financial Report)」.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보고서의 읽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세금관계 서적.

—윌리엄·드롤링거의 「만인을 위한 합법적 감세와 면세소득(Tax Shelters And Tax—Free Income For Everyone)」. 풍부한 자료를 싣고 있는 만인의 필독서로 추천받고 있다.

—로버트·브로스터맨의 「완전한 자산계획 안내서(The Complete Estate Planning Guide)」. 투자전문가가 좋아하는 투자안내서이다.

—폴·스트랏셀과 로버트·울의 「미국국세청에 관한 안내서(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IRS)」. IRS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로버트와 캐롤·탄넨하우저의「합법적 감세의 완전한 안내(Tax Shelters, A Complete Guide)」.

▲크레딧과 보험관계서적.

—글렌·워커의 「마땅히 받아야 할 크레딧(Credit Where Credit Is Due)」.

—조셉·뉴맨의 「사거나 다시 빌리기 전에 크레딧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사항(What Everyone Should Know About Credit Before Buying or Borrowing Again)」.

—조셉·뉴맨의 「보험을 들고 돈을 절약하는 방법(How To Buy Insurance And Save Money)」.

▲부동산관계 서적.

—헨리·해리슨과 마거리·레나드의 「주택구입(Home Buying)」.

—주디스·크리디와 노버트·월의 「목적에 따른 부동산 투자(Real Estate Investment By Objective)」. 비전문적인 부동산투자를 위해 추천된 안내서이다.

—제임스·코크의「시골부동산투자 이윤(Profits From Country Property)」.

▲은퇴에 관한 서적.

—티·부처의 「두려움 없는 은퇴(Retirement Without Fear)」.

—하이맨·와이첸의「은퇴안내서(The Retirement Day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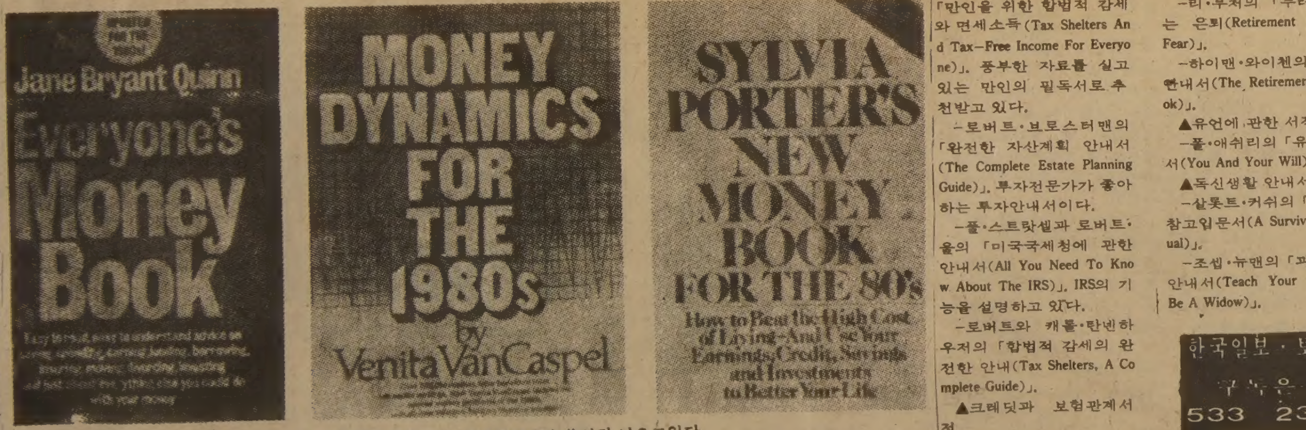
▲유언에 관한 서적.

—폴·애쉬리의「유언안내서(You And Your Will)」.

▲독신생활 안내서적.

—샬롯트·커쉬의「생존자참고입문서(A Survivor's Manual)」.

—조셉·뉴맨의「과부생활안내서(Teach Your Wife To Be A Widow)」.



▲경제위기를 이용하여 경제관계 안내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MARVIN STA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 성 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GMAC이자율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 —2311 (PAUL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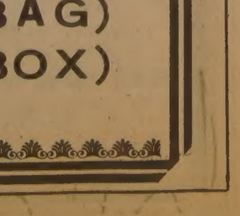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 금주의 스페샬 ◆◆

Nov. 16 - Nov. 28

		SPECIAL
Fruitella	36/25¢	$ 5.12
Rowntree and Neilson Reg. Chocobar	36/40¢	9.59
Cadbury & Rowntree Neilson Family choco. Bar	25/99¢	15.09
Cadbury thick bar	24/55¢	13.75
Neilson thick bar	24/55¢	13.25
Breath saver	12.30¢	2.55
Blue diamond almond 17g Reg. Rosted		5.59
" 85g Reg. Rosted		12.09
Y & S Licorice Pipes	48/10¢	3.05
" Cigar	48/10¢	3.05
Y & S Mr. Chew	48/10¢	3.05
Pal Cum	240/ 2¢	3.09
Acta throat soothers	20/40¢	4.75
Nha stickers	100/15¢	10.29

DOMINION SMALLWARES
크리스 마스때 까지(일요일 오전중만 OPEN 합니다.
920 Caledonia Rd (Cash & Carry에 한함)
789—7214(MR. 김)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김 장 세 일

◆정씨농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아래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세일 합니다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기 간 : 11월16 일~11월29일까지

배 추 : $6.50—50파운드(1BOX)
무 : $6.50—50파운드(1BAG)
총각무 : $7.50—30파운드(1BOX)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 회 장 : 임 철 원
〃 : 김 명 정
이 사 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한인실업인협회 정·부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이 상 철 (토론토한인연합교회 목사)

한인실업인협회는 그간 짧은 시일내에 훌륭한 공헌을 하였다고 보여져 그 발전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이번 또 한차원 전진하는 과정으로 정·부회장 선거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실업인협회의 성장은 비단 그 조직체의 회원들에게만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민들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 까닭은 실업인협회는 한인실업인들이 이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돕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맡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 보고싶은 것입니다. 실업인협회 정·부회장은 어떤 분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다음 몇가지를 희망해 봅니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사업에 성실하고, 또 성공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자기개인사업에서의 성공의 경험을 협회 전체에 나눠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2) 캐나다사회의 다른 민족실업인들이나, 생산업체나, 또는 행정기관등과 의젓한 자세와 당당한 실력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즉 언어도 능란해야 하고, 대인관계에 자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교포실업계를 향상시켜 보려는 뜨거운 정열과, 또 그에 대한 구체안이 있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봉사의 정신과 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이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회원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고, 그들을 번영의 길로 이끌고 갈만한 지도역량이 있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5) 재정운영에 있어서 그 정직함을 스스로 입증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6) 지금까지의 협회사업을 익숙히 알고, 또 앞으로 무엇을 시정하고, 무엇을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훌륭한 정·부회장을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그들의 지도력에 협조하면서 크게 실업인협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분주한 이회장

오는 11월26일(목) 하오 6시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 협회장 이형인씨는 여전히 분주한 스케쥴로 활동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회장은 지난주에 이어 금주에도 계속되는 미팅을 약속해 놓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펴기 위해 단체보험을 통한 덴탈 플랜(dental plan)을 협의하고 있으며, 18일(수)에는 두 차례의 미팅을 갖게될 것이라 한다. 또한 OHIP 의 Mrs. Peggr Dewnes와 만나는데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단체의료보험의 결말을 위한 면담이라고 한다.

한편 이사회의 선거관리 위원들도 수시로 만나 총회의 집행부 선거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민주적인 완벽한 투표가 되도록 회원들의 협조를 요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회비를 미리 납부해 주어야 선거인명단 작성에 착오가 없어 진행이 수월해질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총회일자와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시간을 지켜 달라는 부탁을 회원 각자에게 청하고 있다.

또한 협회사무실에서 는 금주중으로 81년도 연차보고서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우송· 배부할 것이라 한다. 이 책자에는 총회자료로서 업무보고, 결산감사, 예산, 사업계획서들이 포함되었으므로, 회원들이 미리 연구·검토하여 회의진행을 신속히 다루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서도된 것이라 한다.

부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총회장에 지참을 원하고 있다고 실무자는 말하고 있다.

스토어에 권총강도

지난 11월14일(토) 저녁 7시경 토론토 북쪽 10019 Keele St.에 있는 회원 밀크스토어에 권총을 든 2명의 강도가 들어, 약 $400 가량의 현금을 털어갔다.

마침 그 시간은 저녁 시간이어서 한가했으며,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도가 불쑥 나타났다. 어린 딸과 함께 일하고 있던 여주인은 당황하여 꼼짝도못하고 요구하는 돈을 순순히 내어주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이 지역 경찰당국은 최초의 강력사건이라고 하면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변두리 지역을 계획적으로 털고 있는 강도 수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날 브람튼지역의두곳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그 수법과 인상착의가 비슷하여 동일범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한다.

연말을 기하여 더욱 경각심을 지녀야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고 피해를 입은 김모씨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협회에 보고해 왔다.

회원들은 한가한 틈을 내보이지 말 것이며, 혹시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인상착의와 특징을 살필 뿐, 절대로 이상한 행동, 예를들면 무심코 한국어로 중얼대는 것과 같은 경우, 그런 행동이 자극이 되어 인명에 피해를 입는 불행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면서 김씨는 그날 혹시 다른 회원들 스토어가 당하지 않았는가 궁금해 했다. 물론 일을 당하면 기지를 발휘해서 신속히 경찰에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문예작품공고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 영 희 작

(2) 예상치 않은 검은 「강」씨의 출현

상점도 어느정도 정돈될 만큼 되었고, 물건구입도제대로 갖추어져서 손님이 없을땐 매우 한가했다. 사람이 없어서 한가했으니다른말로 바꾸면 장사가 별로 신통치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럴땐 카운터뒤에있는 의자에 편히 앉아서 신문이랑 잡지들을 모조리 읽고, 어느땐 또 매상이 얼마쯤 되었나 궁금해서 캐쉬 레지스터 통안에 있는 돈을 모조리 꺼내서 세어보기도 하고, 원타리오가 몇장남았나 계산해 보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아마 저녁 8시쯤이었으리라 기억된다. 학교다니는 시동생은 맨 뒷자리에서 공부한다고 몰두해 있었고, 난 이쪽 입구에서 항상 그러듯이 신문을 읽고 있는데 못보던 흑인 하나가 쑥 들어와서는 TTC티켓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날 마침 다 팔리고 없어서 내일 오면 있을 것이라고 친절히 대답해 주었다. 좀 머뭇거리더니 아무말 없이 나가버렸다. 그 녀석이 바로 날 놀래줄 검은「강」씨인 줄은 누가 알았으랴!

약 2분후 그 깜둥이가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날 쳐다보지 않고 재빠르게과일 있는데로 가더니 제일 큰 바나나 한 뭉치를 들고와서는 카운터에 놓고 성큼 물러서며 총을 겨누는게 아닌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머리가 그저 멍 했다. 나한테서 아무 반응이없자, 강도는 또한번 위협을하며 나지막한 그러나 아주 신경질적이고 서두르는 표정으로 돈을 내 놓으라 했다.

어떤 심정에서였는지 몰라도 난 그에게 너 스스로가 꺼내 가라고 했다. 그는 재빨리 캐쉬대에 오더니 문을열고, 있는지폐 전부를 냉큼 쓸어서 주머니에 넣더니 나를 경계하며 뒤로 선뜻 물러섰다. 대화가 필요없는 오싹 소름끼치게하는 어느 영화장면같았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쏜살같이 문을열고 나가버렸다. 나도 질세라 그의뒤를 바로 따랐으나 그는 뒤를 힐끔힐끔 몇번 돌아보더니만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며약이 오르는지 몰랐다. 잡기만 하면 그냥 마구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무기를든 그를 잡지 않은게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닭 쫓던 개의 멍청한 모습으로 다시 상점에 돌아왔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그자를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전화다이얼을 돌렸다.

몇대의 경찰차가 요란스런 불을 번쩍이며 상점주위에 나타났다. 순간이었다. 사복형사와 정복경찰들이 상점안에 그득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놀라있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먼저 위로의말을 꺼낸후사건의 진상을 알려달라 했다. 인상착의와 키, 몸무게 들고있던 무기, 머리빛깔 등 묻는말에 자세히 아는대로 대답해 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난 아무런감정의 동요를 실감치 못했다.

조금후 시동생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달려왔다. 나보다도 더 놀란 얼굴이었다. 남편을 보자마자 설움이, 그러니까 뭉쳐졌던 헤아릴수 없는 그런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한없는눈물이 그칠줄 몰랐고,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강도를 만났다는 충추신경의 전달이 이렇게늦게서야 효과를 나타내는것일까? 왜 슬펐는지는 모르지만 제목도 없이 그저 슬퍼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 저녁 남편과 같이 자비스·스트릿에 있는 경찰서로 안내되었다. 용의범(주로전과자)들의 사진은 피부색, 연령, 신장, 몸의 생김새(비대한 편인가 마른편인가등등)의 구별에따라 빨리 분류할 수 있게끔 콤퓨터로 장치되어 있었고, 얼마후 흑인들의 사진을한 주먹 나에게 건네주며 범인을 골라내라고 했다. 한장, 한장을 자세히 봤다. 모두가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비슷한지 이젠 내 뇌리에 뚜렷이 반영되었던 그 범인의 진짜인상마저도 혼돈이 되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중에서 제일 흡사한 사진 한장을 골라냈다.

거의 밤11시가 되어서야 집에왔다. 집에와서 남편의 얘기 왈"그 권총의 총구안에 오목조목하게 선이나 있더냐? 그냥 동그랗더냐?"만약 총구안에 선이 없었다면 장난감 총이니 놀라지 않아도 될 걸그랬다니, 내 얘기인즉 "여보! 그래 그걸볼 정신이 어디있수? 진작 알려줬더라면 자세히 총구부터, 본후 육박전이라도 할걸 그랬수" 둘이서 그저 멍청히 웃었다.

그로부터 약 2주후 사복형사가 들렀다. 용의자를체포했으니 확인을 위해 같이가 주겠느냐고 묻는다. 물론 그자를 잡아야 된다는 신념은 그때까지도 변하지않아 쾌히 응락하고, 그와함께 재판이 열리고있는 보로우(Borough) 법정으로 갔다. 가는도중 그자가 도로불심 검문에 흉기소지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니 난 그저 방청석뒤에가서 그자인지 아닌지만을 알려달라는 얘기였다. 방청석에 들어가 사복형사와 나란히 앉았다. 기소된 죄인들이 하나씩 피고석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중에 그자가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얼마나 쿵쿵거리며 뛰는지 옆에앉은 사람들이 나의심장 소리를 들을수 있을것 같아 불안했다.

나는 참 흥분돼 있었다. 약 2주간이 지나서 그의얼굴이 조금은 핼쑥해져 있었지만 옷도 똑같은 옷이고, 얼굴형이며 틀림없는 그자였다. 난 떨리는 음성으로 옆 경찰에게 그를 가리키며 범인임을 확인해 주었다.

얼마후 그는 자마이카에서온 불법이민자로 몇년수감된 후 캐나다 정부 에서 무조건 귀국시킨다는 연락을 그 형사로부터 받았다.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다. 그 뒤로는 그자가 또다시 나타날것 같아 몇개월동안 상점에 나갈수가 없었다. 부득이 그동안은 아빠가상점을 운영해야 했다.

(계속)

주간女性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정, 부회장 입후보 등록필 공고

본 회칙 제6장 22조에 의거하여아래와 같이 정, 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아 래—

등록 제1호 회장후보 : 임철원
부회장후보 : 하소영
부회장후보 : 최복기
등록 제2호 회장후보 : 차선결
부회장후보 : 김이열
부회장후보 : 조기언

— — × — — × — — × — — × — — × — —

투 표 일 : 1981년11월26일(목)하오6시
투표장소 : 돈 밸리 할리데이 인(COMMONWEALTH BALL ROOM WEST) 1250 EGLINTON AVE EAST.

1981년11월12일

한인 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이 국 영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1981년도 정기총회 선거인명단 추가공고

본 협회 회칙 제5장17조와 제6장 선거의 제조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선거 세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명단을 공개합니다.

1981년11월17일
선거관리 위원장 이 국 영

— 아 래 —

이 명단중에 누락된 분이나 착오로 인한 잘못이 있으면 즉시협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7일 이후에 가입한 신규회원이나, 명의 변경한 회원들은 투표당일 밴더스 퍼밋 신분증(운전면허증, 시민권, 영주권)을 제시 확인한 후에 투표권을 교부하게됨.

× × ×

추가명단 :

120	권 효 웅	284	김 홍 태	200—17	한 천 석
135	최 우 인	291	양 건 영	200—33	김 정 지
155	이 홍 규	350	박 현 재	200—54	전 영 식
161	채 덕 남	409	허 규 상	447	임 윤 식
178	변 희 룡	508	안 정 성	123	이 훈 규
170	손 정 호	543	박 천 봉	221	김 충 헌
196	변 경 룡	571	박 종 남	298	박 주 용
199	곽 영 간	573	서 춘 원	200—48	최 대 덕
217	이 휘	574	박 승 동	300—12	김 구 명
247	이 정 수	649	정 원 규	300—29	조 윤 자
				415	박 영 석

정 정 :
291 김준환은 292번으로 정정,
343 석종윤은 정영춘으로 정정
166 김기수는 566으로 정정
200—20 이시우는 착오 임으로 삭제 432 임항순

한인실업인협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본회 회칙 제3장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1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시 일 : 1981년11월26일(목요일) 하오6시

장 소 :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Wynford Dr. 에 입구있음)

안 건 : 1.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3. 이사회 보고
4. 감사보고
5. 정 부회장및 이사선출
6. 회칙개정
7. 기타안건

1981년10월9일

한인실업인협회장
이 형 인

"教育廳數 대폭縮小"

政府 豫算제안설명 LA에 韓人학교 설립

建築활성화 적극推進

中小都市에도 賃貸주택 건설

海外研修학생 所持金 1人當 5백弗로

국회豫決委는 17일하오 5개分科委를 續開, 소관部處別로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제1分科委는 國防部와 국가安保會議, 제2分科委는 文教部와 文公部, 제3分科委는 商工·動資部, 제4分科委는 勞動部와 원호처, 제5分科委는 建設部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제2分科委 李奎浩문교부장관은 『敎育廳數를 축소하는 문제는 정부기구개편때 단행할 생각이었으나 준비부족으로 줄이지 못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교육청축소문제는 연구하여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에는 아직 한국인학교가 없지만 로스앤젤레스에 부지를 마련, 조만간 학교를 신설할계획』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高校平準化 제도를 폐지하고 高校입시제도로 환원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高校平準化는 아직 재고해본적이 없다』고 말하고 『일생을 좌우하는 가혹한 경쟁은 뒤로 미루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된 뒤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李장관은 금년도 해외연수에 나간 대학생들은 1인당 1천달러씩 소지한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는 外貨절약을 위해 1인당 5백달러이내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립大교수들의처우개선을위해 기성회비를 轉用해서라도 연구비를 늘릴방침이라고 말하고 농촌의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행정비지출을 억제하기위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李장관은 이에 앞서 예산안제안설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산업사회에 적응키위해서는 전생애가 학습기간이 되고 전사회가 학습의場이 되어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開放대학을 설립하고 전문대학의 短期특별과정을 통해 전문직업인의 재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할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 교육세新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이 마련되면 내년도에 국민학교는96개교, 3천2백36개교실을 신축해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63명수준으로 완화하게되며 1백학급 이상의 과대 규모학교가 분리되고 3학년의 2部制수업은3분의1이 해소될것』이라고 말했다.

제3分科委 朴鳳煥動資部장관은 『資源외교강화로 原油의 備蓄목표60일分을86년까지 달성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내년의 石炭은 1천9백70만톤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3백80만톤을 수입함으로써 需給에 안정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가격은 지난61차OPEC(석유수출국기구)특별각료회에서 油價가 單一化됨에따라 한국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사우디의 原油價가 실질적으로 인상되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있다』고 전제, 『그러나 현재 우리는 45日分의 石油在庫와 60日分의 석탄貯炭量을 갖고있으며 전기도 20%의 適正豫備率을 보유하고있어 안정된 에너지需給구조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제4分科委 權重東노동부장관은 제안설명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人力양성을 위하여 내년도에 훈련체제를 民間主導로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사업내 직업훈련의 內實化와 公法人 훈련원의 보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 산업여건을 고려한 訓練工科를 신설해 훈련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82년도 시책으로 ▲근로자의 生計와 노동생산성이 향상될수있는 適正賃金수준으로 勞使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下厚上薄원칙에의해 低임금을 중점 개선하겠으며 ▲海外人力진출을 확대하기위해 中南美, 아프리카지역에 시장 조사단을 파견, 新規시장을 개척, 人力진출기반을 다지고 ▲産災보험적용대상을 현16인이상에서 10인이상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하며 보상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李鍾浩원호처장은 내년도 시책에서 『애국지사 勳章者와 1급重傷病者의 1인당지급액은 금년보다 20%, 그외 대상자는 15%를 인상지급하고 60세이상의 무의탁상이자에게는 생계수당을 新設, 지급할계획』이며 『轉役下士官의 직업輔導, 이들 자녀에대한 교육보호와 장기복무轉退役者의 의료보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군인보험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李圭孝건설부차관은 『경기부양효과가 큰 건축이나 주택경기를 우선적으로 活性化시켜야 한다는것이 정부간의 공통된의견으로 특히 경제부처는 주택경기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함께 가는 중』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50%를 융자하면서10坪짜리 서민주택을 공급하고있지만 절대분량이 모자라기때문에 내년부터는 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제5分科委 金周南건설부장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82년에서 91년까지계속되는 제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착수하고 半月등 新都市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國土이용관리의 合理化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住宅難해소를 위해 중소규모 국민주택건설과 宅地개발사업을擴大하고 生活用水 공급시설을 개발 擴充하고 下水道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泰文敎相·美銀行長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7일하오 청와대에서 美아메리카은행의 사무엘·아마코스트 행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承潤재무부장관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泰國의 시파논다·케투다트 문교장관을 접견했다. (사진)

콜럼비아號가 찍은 釜山·慶南일대

◇美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가 高度 약2백70㎞상공에서 잡은 釜山을 中心으로한 경남지방의 모습. 이 사진은 콜럼비아號가 27번째 지구궤도비행중에 찍은것으로 휴스턴우주센터에서 16일 공개했다. 오른쪽아래부분에 쓰시마(對馬)섬이 보인다. 【휴스턴16日AP합同】

"對中共交易 점차改善"

申副總理, 經科委서 밝혀

申秉鉉부총리는 『현재 中共과의직접交易은없으나 앞으로 中共과의交易이 점차개선될것으로생각한다』고 밝히고 『外國人 投資家들도 한국을 對中共交易의 前進기지로판단, 合作投資를시도하고있다』고말했다.

申부총리는 이날 국회經科委에서 이같이말하고 農家負債는80년말현재 가구당평균 63만8천원이며 短期負債는 34만2천원이라면서 오는87년까지 主穀의自給이 달성될 것이라고전망했다.

法令정비 小委구성 합의

國會法司委 言論·地自·藥事法등 심의

국회는 이번 會期內에 法司委의 法令정비小委를구성, 民韓黨이 改·廢를 주장하는 언론기본법, 지방자치제법, 노동爭議조정법등 13개법안과 民韓黨이 별도로 마련중인 漢藥士法등을 심의키로했다.

高在淸 民韓黨총무는 17일상오 당무회의에서 『국회법령정비特委를 구성하자는 우리黨의 주장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民正黨이法司委小委구성에는 동의하여 지난14일 民正黨 李鍾贊총무와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오는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되는 小委는 일종의 受權小委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小委에서 다룰 법안은 소관상임위에서 직접 심의하되 기타법안은 소관상임위에 회부하는 방법을 택하게될것』이라며 『구체적사항은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韓日文化교류 확대
내년4월 實務회담

【東京靑日=합同】한일양국은 문화교류를 확대하기위해 내년4월 東京에서 국장급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한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아마오·다미오(天羽民雄) 일본외무성 정보 문화국장은 16일 『청년교류·미술전시회 상호개최등 한일문화교류를 확대하기위한 제1회 정부간 협의를 내년4월 東京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레이건, 내일 核문제重大연설

【워싱턴16日UPI=합同】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유럽지역에서의 제한핵전쟁위협성을 감소시키기위해 18일 중대외교 정책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미정부소식통들이 16일 전했다.

소식통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이 연설이 18일상오10시(한국시간19일0시)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있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최근 초강대국간의 제한 핵전가능성에 관한 논평과 관련,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의 18일 연설은 서유럽지역에서의 핵충돌 우려를 진정시키는 기회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日, 30日께改閣
黒字말썽등 解消

【東京16日=합同】스즈끼(鈴木)일본수상은 16일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로 인한 대외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30일경 개각을 단행하고 자민당집행부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방송된 NHK방송과의 녹화인터뷰에서 이번 개각을 통해 『경제·상업·무역문제에 관한 구체적 조치를 입안할수 있는 새로운 개각진용을 제시할것』이며 개각은 오는30일 경에 단행될것』이라고 말했다.

먼데일 前美副統領 24일訪韓, 懸案논의
홀브루크 隨行

◇먼데일前美副統領

월터·먼데일 前미국부통령이 정부초청으로 오는24일 訪韓한다.

먼데일前부통령은 이번 방한기간중 全斗煥 대통령과 南悳祐국무총리, 盧信永외무장관을 차례로 예방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東北亞정세와 상호관심사에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板門店도 시찰할 예정이다.

먼데일前부통령의 이번 訪韓에는 리처드·홀브루크 前국무성 東亞·太平洋담당차관보, 리처드·토리체리보좌관등 4명이 수행한다.

社告

'82新春文芸 作品모집

새文化主役 覇氣넘친 作家 기다립니다

稿料도 올려…戱曲을 신설

80년대 문화變革의 主役이 될 新人作家를 찾습니다. 해마다 유능하고 패기넘치는 새 作家를 발굴해온 한국일보社는 올해도 한국문학의 흐름을 새롭게 이끌어나갈 新人의 등장을 기대하면서, 1982년도 한국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1955년에 시작된 한국신춘문예는 언제나 한국문단의 토양을 살찌우는 권위있는 행사로서, 올해로 28번째 登龍의 門을열고있읍니다. 한국일보는 매일 詩를 싣는세계유일의 신문이며, 한국創作文學賞, 한국文學飜譯賞, 한국出版文化賞등 권위있는 시상제도를 통해 한국문학振興에 남다른 힘을 기울여오고 있읍니다. 특히 올해 신춘문예에는 그동안 소외되어온 戱曲부문을 신설하여 지난17년간 전통을 쌓아온 한국演劇映畵賞과 脈을잇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려하고 당당한 文壇데뷔를 위해 해마다 초겨울을 기다려온 우수한 文學徒들에게 보답하는 뜻에서, 원고료를 크게 올렸음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모두6개部門으로…小說1백만원

마감 12월12일

◇種目및 원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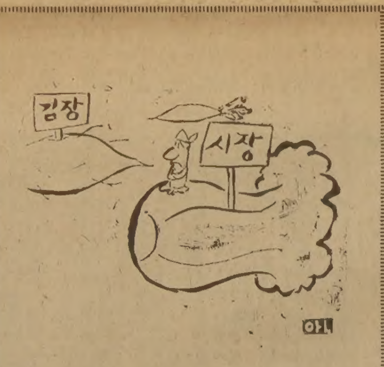
▲小說(2백자80~100장)……1백만원
▲詩(3편이상)……50만원
▲時調(3편이상)……40만원
▲隨筆(2백자15장2편)……40만원
▲童話(2백자30장안팎)……40만원
▲戱曲(單幕·80장안팎)……60만원

◇應募요령

▲마감=12월12일(토요일)하오5시까지
▲보낼곳=서울鍾路區 中學洞14번지 한국일보社 文化部(우편번호110)
▲주의사항=①겉봉투에 반드시 「신춘문예응모작」이라고 밝히고, 응모부문을 명기할 것. ②원고의 첫장과 뒷장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明記할것. ③응모작은 일체 반환치 않음.

한국일보社

社会漫評



해마다 시들해져 가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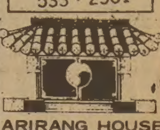
地平線

단돈 1천달러때문에 미국이란 큰나라가 떠들썩하다. 레이건대통령부인낸시여사와의 인터뷰주선代價로 리처드·앨런 白堊館보좌관이 1천달러를 받은것이 문제가돼 特검사선까지 나오는가하면 대통령마저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다. ▼문제의 1천달러는 낸시여사와 5분간 인터뷰한 일본여성잡지 「主婦의벗」취재팀이 앨런보좌관에 자선기금으로 주었다는 돈이다. 낸시여사는 돈을받은일이없고 몇몇일본기자들과 사진을찍은 희미한기억만 생각난다는 것이다. 앨런보좌관은 처음엔 청탁일도 받은일도 없다고 딱잡아떼다가 나중엔 문제의 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했으나 옛사무실금고에 넣어둔채 까맣게잊어버렸다고 해명하고있다. ▼미국에선 공무원윤리규정에 따라 1백달러이상의 돈을받으면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스캔들치고는 규모가 작으면서도 의외로 사건이 확대돼 「저팬게이트」로 불똥이 튄것이다. ▼문제의 사례금이 뇌물인지 자선기금인지 자세치않으나 미국이란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의관리가 윗사람의 기자회견때 중간에서 돈을 받은 것만은 확실하다. 리시브냐 액셉트냐 논란되고 있다지만 그 밑바닥엔 급행료나 뇌물(bribe)이 일반화 되어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불러일으킨다. ▼원래 bribe는 라틴말로 빵조각을 의미하던것을 프랑스사람들이 빵덩어리, 빵찌꺼기를 무료로 줄때 썼다. 영어에선 청을받으면 주는물건, 프레젠트로 쓰이다가 근래에와선 돈으로 매수할경우에 쓰게되었다. 또 뜻으로는 팁하고 통한다. 팁도 알고보면 요새말로 급행료가 시작이고 나중에 사례금같은성격이됐다. ▼중국의 경우지만 官久自富라는 속담이있다. 관리를 오래하면 저절로 재산이 생긴다는말이다. 아무리 청렴결백해도 縣知事쯤 된사람이 3년만 그자리에 앉아있으면 銀10萬냥이 모인다고 했다. 중국에선 옛날만해도 官吏의 官과 吏는 별개였다. 官은 正式公務員이고 吏는 실제로 公務를 맡으나 월급이 없었다. 官은 回避制에 따라 자기고향에 부임못하고 3년마다 근무평정을받아 任地를 옮겨야 했다. 吏는 縣廳에서 무보수로 일했다. 吏는 생활을 해결하기위해 온갖手數料로 민간에서 멋대로 돈을 뜯어냈는데 官은 이돈에서 또 上納을 받았던것이다. 월급이 적은보수를받던 官에는 汚職을 막기위해 養廉銀까지 지급됐지만 吏는 뇌물을 받거나 세금을 가로채지않으면 생활이 안됐으니 汚職이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의 앨런스캔들이 汚職인지 아닌지를 밖에서 말할처지는 아니지만 미국이란 부자나라에도 이런 치사한 일이 있구나하고 다시금 생각하게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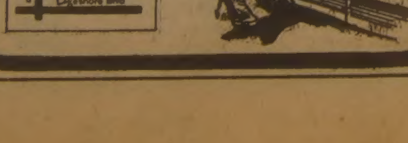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성의껏 열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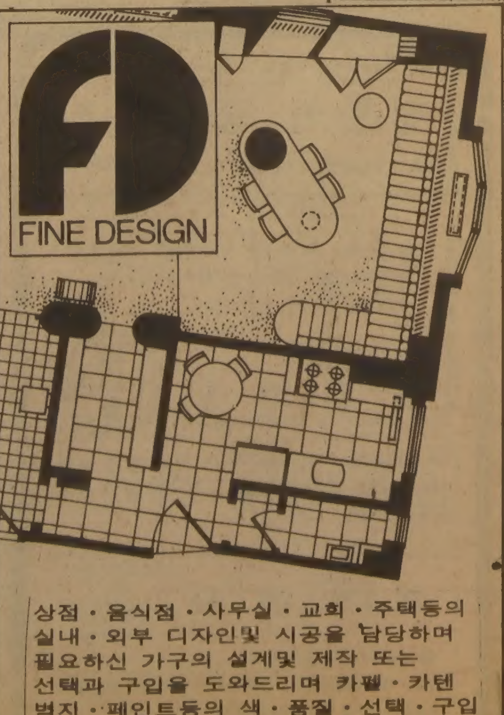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샵: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½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½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5,500. 주매상: $7,000.
주매상: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MASTER AUTO BODY
●A급 BODY MAN(16년 경험)
●사고 보험관계 일체처리
●무료견적
●수리중 자동차 대여
●사고차량 픽업써비스
95 PORTLAND ST. TOR.
(B) 255-2111
255-1000
(R) 828-5001
전 기 덕



제 2 회
토론토 각교회 학생회
대항 성경퀴즈 대회
때 : 1981년11월28일(토)하오1시~4시
곳 : 토론토제일한인장로교회 본당
963 PHARMACY AVE. SCAR
참가자격 : 토론토 시내 각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원 대표4명
퀴즈범위 : 구약의 창세기, 신약의 누가복음 (영어와 우리말 사용)
신청방법 : 전화접수 공병화(626-5382) 조성섭(421-2469)
신청마감 : 81년11월22일(일)
시상 : 우승, 준우승및 각 개인별 참가상
참가비 : 교회별 $10—
주최 : 토론토 제일한인 장로교회 청년회

FINE DESIGN



상점·음식점·사무실·교회·주택등의 실내·외부 디자인및 시공을 담당하며 필요하신 가구의 설계및 제작 또는 선택과 구입을 도와드리며 카펱·카텐 벽지·페인트등의 색·품질·선택·구입 주문등도 도와드립니다.
676•1173/622•5328 조 덕남

美, 리비아등 參與하는 아랍財團에 通信衛星장비販賣 추진

【워싱턴17日AP聯=聯】레이건美행정부는 리비아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참여하는 아랍재단에 경고한 통신위성 장비를 판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17일 말했다.

이통신위성장비판매계획은 지난달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포함한 85억달러상당의 무기를 사우디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을때와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킬게 확실하다.

포드 대기권통신회사제품인 이통신장비는 전화·텔렉스·텔리비전회로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1억3천만달러가 소요된다.

2주일전에 미의회가 이통신위성의 군사적이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자 미국방성은 이를 인정, 판매계획을 보류했었다.

미의회는 무하마르·가다피 리비아정부와 PLO가 군사적으로 이통신위성을 이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었다.

한소식통은 리비아의 아랍재단 출자율은 17%라고 밝혔다.

◇鄧小平 만나는 美 리건財務 中共을 방문중인 도널드·리건 美재무장관이 17일 中共의실력자인 당부주석 鄧小平과의 會談에서 주먹을쥐어올리며 鄧의건강을 추켜세우고있다。【北京17日AP電=聯】

美 나토核戰略 혼선 "指導人士들 發言엇갈려"

슈미트, 우려表明

【본16日AP·聯=聯】슈미트 서독수상과 한스·아펠국방상은 16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전략에 관한 미국지도층의 엇갈린 발언에 각기 우려를 나타냈다.

슈미트수상은 이날 보도된 런던·타임즈지와의 회견에서 유럽의 제한핵전쟁발발가능성에 대한 미국지도자들의 엇갈린 논평에 우려한다고 말하고 『워싱턴으로부터 보다 조화된 협주곡을 듣고 싶다』며 『이같은 조화음이 서독 중립에게도 좋게 들릴것』이라고 말했다.

슈미트수상의 이같은 우려표명과는 별도로 아펠국방상은 서독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제한핵전쟁가능성을 시사한 레이건미대통령의 발언은 오해를 야기시킬수있다고 말하고 NATO전략의 핵심은 적으로 하여금 NATO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인데 이같은 논쟁을 벌이면 적에게 NATO전략을 위험에 빠지게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나토加入반대示威 스페인, 50만참가

【마드리드15日聯=聯】스페인인 약50만명이 15일 마드리드 대학교정에 모여 스페인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계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집회 조직자들은 이번시위가 지난2월 1백만명의 마드리드시민들이 미수에그친 군사쿠데타를 규탄하는시위를벌인이래 최대규모라고말했다.

中共, 對西方 계속開放 國內경제惡化 불구… 각分野 협력

2차美·中共經濟협의회開幕

【北京16日AP·AFP=聯】제2차 美·中共공동경제협의회가 개막된 16일 중공관리들은 중공이 중대한 국내경제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對西方『개방』정책, 기술도입 및 외국자본의 이용을 계속할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레이건美대통령은 미·중공공동경제협의회의 미측수석대표인 도널드·리건재무장관을 통해 미·중공관계가 그의 외교정책에서 중추적요소임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중공측에 전달했다.

중공측수석대표인 부수상 薄一波는 이날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공공동경제협의회 리건재무장관을 위해 베푼 환영만찬에서 『中共경제에 특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으나 對西方개방정책과 외국의 기술및 자본도입을 계속할것이라고 말했다.

薄一波는 이어 『미·중공경제협력이 양국에 이익이 될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정부, 금융계, 에너지산업, 운송및 통신분야에서의 협력을 환영했다.

波 3萬대학생 盟休 自由요구…24일까지 學校폐쇄宣言

【바르샤바16日UPI=聯】폴란드의정치·경제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와 자유노조간의 협상을 하루 앞둔 16일 3만여명의 폴란드대학생들은 대학의 자유를 요구하며 맹휴에 돌입, 오는 24일까지 대학을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전국자주학생협회는 이날 바르샤바 브로클라프 체스초프등지의 대학생 3만명이 정부의 새로운 고등교육법제정을 통한 대학의 자유를 요구하며 대학캠퍼스를 점거하고있다고 말하고 약29만명에 달하는 폴란드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오는 24일까지 대학을 폐쇄하는데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國務省대변인 言明 "中共의 國共합작 제의는 美國입장과 一致"

【워싱턴16日聯=聯】美국무성은 16일 중국통일을 위한 중공측 제의가 대만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딘·피셔美국무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통해 중국통일에 관한 9개항의 중공측 제의가『대단히 괄목할만한것』이라고 평가한 지난 14일의 알렉산더·헤이그 국무장관의 발언은 중공측이 상세하고도 포괄적인 중국재통일방안을 제시했음에 주목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얼굴 辯護士·사업가등 經歷다양 —방글라 2代대통령 사타르氏

◇사타르 大統領

【대카16日AP=聯】방글라데시의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압두스·사타르는 정계이외에도 변호사·사업가·대법원판사및 공무원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

사타르는 1906년 6월 인도 캘커타교외의 소읍에서 출생했다. 법률을 전공한 그는 1929년 학위를 받자 캘커타에서 법조계생활을 시작, 1939년에는 캘커타市자치단체의 법률고문역을 담당했으며 1945년에는 이 단체의 위원장이 됐다. 1947년 인도와 동·서파키스탄이 분리되자 東파키스탄(현방글라데시)으로가 1950년에는 변호사업을 개업했다. 그는 1954년 정계에 투신, 2대국회의원에 당선, 의원생활을 하다가 2년후인 56년 내상겸교육상으로 입각했다.

사타르는 1957년 동파키스탄고법판사가 됐으며 68년에는 대법원판사로 승진했다. 그는 이같은 오랜 법조생활로 이름뒤에는 으레 『판사』란 호칭이 붙어다녔다.

1973년 그는 사업가로 전신, 방글라데시 생명보험회사의 사장을 거쳤으며 이듬해 법률정보원의 회의장과 법률 및 국제문제연구소장직을 역임했다.

比 新築中건물붕괴 25명死亡·중상50명

【마닐라17日UPI·聯=聯】내년1월의 국제영화제개최를 위해 마닐라에 건립중인 건물의 천정이 내려앉는 붕괴사고가 17일새벽에 발생, 작업중이던 인부25명이 현장에서 죽고 50여명이 중상을입었으며 15명이 아직도 건물속에 갇혀있다고 현장인부들이 17일 전했다.

참사광경을 목격한 이들인부들은 이날 새벽2시께 건물6층지붕에 시멘트를 바르고 있을때 갑자기 6층천정이 내려앉았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25구의 시체가 발굴됐으며 흙더미속에 갇혀있는 인부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계속중이라고 말했다.

환경상을 겸하고있는 퍼스트레이디 이멜다·마르코스여사의 지시로 8월에 착공된 이건물은 내년1월에 열리는 국제영화제 개최장소로 사용하기위해 막바지 공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었는데 붕괴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메아리 禦洋日記

병인양요라 하면 고종3년(1866년)프랑스함대가 강화도를 공격 함락시킨 사건으로 한말풍운의 가장 두드러진 한 갈피를 이루는 역사의 토막이다.

이 사건은 천주교를 탄압했던 이른바 병인사옥으로 9명의 프랑스 신부를 포함하여 8천여 천주교신자들이 순교하게 되자 탈출에 성공했던 리델신부가 당시 중국 천진에 주재하고 있던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 로즈제독에게 구원을 요청함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의 자초지종은 당시의 정부공식문서라할 일성록, 승정원일기등에도 기록이 상세하고 또 내외학자들에 의한 연구의 축적도 있어서 이설의 여지가 별반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한말 의병대장인 유홍석선생의 후손인 춘천시거주 유연익씨(48세)댁에서 병인양요에 직접 참전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고위군관의 일기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일기는 밝혀지지 않고 순무천총의 벼슬이름과 무아라는 아호만이 밝혀진 이 禦洋日記의 필자는 1866년8월16일 양선2척이 서강에 처음 나타났고 2차로는 9월6일에 양선 7척이 강화도등에 나타난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두번째 침범이 10월로 되어 있어서 새로 발견된 일기의 기술과는 한달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직 학문적인 고증이 끝나지 않아서 속단은 어려울 것이나 지금으로 부터 1백15년전의 그 정도 피아의 기록이 풍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적인 영향도 컸던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이토록 들쑥날쑥 한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케 한다.

병인양요로 프랑스제국의 위신은 여지없이 떨어지고 반면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은 기승을 부리게 되었으며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는 한층더 가열해졌다.

한말의 바로 손에 잡힐듯한 역사적 기록도 이제와서 보면 공백이 많으려니와 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제하나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인 기록에도 들쑥날쑥은 있고 더러는 망각된것도 허다하니 당대의 우리는 되도록 역사적인 기록의 보전으로 후인들에게 역사의 공백을 남기지 말아야할 책임이 있을것이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敬?〉 윤치영 ㊾

老英雄의 出國

李박사 떠난것 梨花莊 전화받고 알아 만류못해 後悔막급…다시못만난痛恨

4·19가 난지 한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아침『李承晩박사 하와이亡命』이란 신문號外가 서울장안에 뿌려졌다.

5월29일, 그날이 端午節이었다. 이른아침 집을 거닐고 있는데 梨花莊의 黃圭免비서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는『李박사가 조금전에 출국하셨다』고 알려왔다.『무슨말이냐』고 물으니『요양차 하와이로 떠나셨다』고 했다. 나는 李박사가 梨花莊에서 계속 지낼것으로만 생각했었다. 李박사의 출국은 나에겐 천만뜻밖이었다.

이날 새벽6시50분께 李박사는 프란체스카여사와 함께 梨花莊을나와 金浦공항에서 은밀히 떠났다. 그때 공항에 미리알고 나온 사람이라고는 過渡政府의 許政수석국무위원과 京鄕新聞기자 2명뿐이라고했다.

李박사부처가 타고간 CAT機는 하와이에있던 윌버 崔씨가 費貸를 내 보냈다고 뒤에 들었다. 당시 7천달러에 전세냈다는 얘기가 있었다. 李박사의 하와이行은 駐韓美대사관측을통해 주선이됐다는것이다.

내가 만일 李박사의 하와이行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를 극력 말렸을 것이다. 신문號外는 주먹같은活字로「亡命」이란 주먹글씨를 달았지만 나는 亡命이란 당치않다고 생각했다.

살아도 죽어도 이땅에서 지내고 정치적功過에대한 평가 또는 심판도 조국에서 받아야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도 난 李박사가「療養」을 끝내면 돌아오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될 줄이야. 自由黨天下에선 권세의 무리들한테 당한 박해로 李박사를 못만났고 마지막 길을가는 野人인 그분도 못봤으니 허망하게도「스승」李박사에대해 나는 끝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말았다.

당시 李박사출국을 놓고 각계에서는「政局안정에 도움이 되는길」이라는 贊成論과「무책임한 도피」라는 비난이 엇갈려나왔다. 이문제를 두고 過政에대한책임 추궁론까지 나왔다.

나는 李박사를 하와이로 가게한 알궂은 策動의 裏面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와서 다시 누구를 일러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그네들의 처사는 양식을 벗어난 愚行이었다고 난 생각한다.「모든 일은 정정당당해야한다.」

李박사가 망명길에 오르기 전세상의 일각에서는 李박사가 白凡金九선생을 저격토록 했다는 말이 퍼어나오면서 그 말이 조용한 梨花莊에 衝擊波를 던져 하와이로 가게만 들었다는 말도 있었다. 여하간 李박사가 갑자기 떠나게된 배경에는 外來의 計略과 국내 몇사람의 그릇된 처사가 있었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老박사는 하와이에 간 뒤에도『나를 조국땅에서 묻히게해달라…』며 조국에 돌아가고싶어했다. 그러나 李박사는 하와이생활 5년만인 65년7월 90세를 일기로 한많은 생애를 마쳤다. 그 며칠뒤 그렇게 오고싶어하던 조국에 死者가 되어 돌아왔다.

雩南 李承晩. 그는 본시부터 위대한 애국자였다. 舊韓末에는 外勢의 침탈앞에서 기우는 國運을 일으키려고 애국운동을 전개하다 사형언도까지 받고는 다년간 獄苦를 치렀고 日帝때는 臨政의 초대 대통령으로, 독립외교의 기수로 활약한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다. 또 해방후에는 建國을 이룬 선구자였다.

李박사를 두고 권모술수의 化身, 민중위에 군림한 君主, 독재자등등의 비난도 있었다. 그런 비난중엔 그분의 전체를모르고 하나의현상만 極化해 풀이하는 경향이 없잖아있다. 李박사는 先見之明을가진 위대한 經世家였고 정치를 알고 戰略에 앞선 위대한 정치인이었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建國을 전후해 어지러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는 실상 그를 앞설만한 인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뒤 그에게 도전했던 野黨의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李박사를 적극옹립했던 인물들이었다. 李박사를 야당측이 독재자라고 처음부터 몰아붙였지만 그네들의 행위는 어떠했던가. 6·25戰亂중 단결하고 勝戰태세를 갖춰야될시기에 수의優勢를 이용, 대통령을 내쫓으려고 내각책임제 改憲을 시도하고 풍파를 일으켰으니 원칙적으로 그네들의 잘못도 적다 할수가 없다. 그런 野黨의 섣달한 政略을 또쳐기위해 自由黨은 정치테러까지감행했고 與野는 극한대립을 계속했다. 李박사는 본디 민주주의를 알고 이를 실천하려한 지도자였다. 그는 언론자유를 보장한 정치인이었고 多數決이 원칙이나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면 少數決도 따라야한다고 생각한인물이었다. 아이러니컬한 일이지만 李박사가 4·19당시 대중들의 시위가 부정선거규탄에 있었다는것을 비로소 안것은 바로 4월19일의 국무회의에서였다. 당시 自由黨간부들이나 국무위원들은 馬山시위의 이유를 캐묻는 李대통령에게 엉뚱한 말만하다가 4월19일에야 어느국무위원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그때 李박사가『부정을 보고 항거못하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야』라고 한 말은 두고두고 많은것을 느끼게 해준다.

◇下野한뒤 梨花莊에 머물던 李承晩박사부처는 내키지않은 발걸음으로 하와이로 亡命아닌亡命의길을떠났다。사진은出國前 李박사(검은 안경쓴이)와 許政過政首班㊧。

流星의 賦 <237>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③

수길(秀吉)은 모든 분야(分野)에서 남의 의표(意表)를 찌르는 인간이다.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거니와 그의 호색(好色) 또한 이상(異常)할 정도였다는 것은 선교사 루이스·프로이스가 1593년에 본국 포르투갈에 보낸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관백(關白), 즉 수길은 파렴치할 정도로 호색한(好色漢)이다. 그는 동물적인 육욕에 탐닉하여 그의 궁전내에 2백명 이상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족군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수도(首都)와 지방의 선민을 발탁, 조금 예쁘다 싶으면 보이는대로 데리고 오는것이다. 궁으로 데리고 와서 육욕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나 그 여자들을 전부 머물게 두는 것은 아니다. 하루 이틀 맛을 보고 적당히 돌려보내는데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오래 머물러 있게 했다…』

일본의 기록을 보아도 수길의 첩은 많다. 가장 총애한 여자가 요도기미(淀君). 이 여자가 수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감심하지 않을수 없는 건 그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빠져버리지 않고 정실(正室)을 지극히 섬겼다는 점이다.

외지(外地)에 나가 있을때 편지를 쓸 때는 꼭 그 본처에게 썼다. 첩들에게 대한 문안도 정실을 통해서 했다. 갖가지 괴벽(怪癖)으로 생활이 난맥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중심은 잡고 있었다는 얘기도 될것이다.

수길이 대륙을 침략할 생각을 벌써부터 가졌다는 것은 이미 얘기한 적이 있거니와 그런 야심이 어디에서부터 생겨 났는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추측컨대 부하들의 과잉충성이 그렇게 만든것이 아닌가 한다.

1587년 6월 수길은 구주(九州)에 있었다. 사쓰마(薩摩)의 시마즈요시히사(島津義久)를 항복케 하고 히고(肥後)의 사시끼(佐敷)에 진을 치고 있었을 무렵이다. 예정대로라면 구주를 평정한 연후 곧 군사(軍士)를 돌려 관동(關東)과 동북(東北)을 쳐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수길의 뇌리에 비친 것이 있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전이 시킨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길의 상전은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이다. 수길은 그 상전이 죽은 후 천하를 물려받은 것이다. 물론 상전의 후계자로서 자기를 정립할 수 있기 위해선 대소의 전투를 겪으며 피나는 노력이 있기도 했지만 돌연 반성해 보니 자기는 상전의 괴뢰였다. 수길은 상전이 생전에 구상한 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야 겠다)

고 생각했다. 옛날의 수길은 아닌 것이다. 상전 노부나가(信長)의 벼슬은 우대신(右大臣)이었는데 수길은 어느덧 관백태정대신(關白太政大臣)이었던 것이다.

빈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관백태정대신이 된 풍신수길(豊臣秀吉). 쯤의 불세출의 대영웅이 타인이 세운 계획과 노선만을 따르고 있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그렇다. 하늘은 그 따위의 끝이 되게 하기 위해 풍신수길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닐 것이다!)

동시에 어떤 의욕이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당시의 상황을 일본작가 야마오까소오하찌(山岡莊八)의 기록을 참고로 적어본다.

◇美式축구같은 발레 파리의 파레·데·콩그레에서 公演中인(12월20일까지) 소련의 모이세이에브발레團. 마치 美式축구와같은 場面을 연출하고 있다.【키스턴=聯】

이집트 軍事대표단 이스라엘着

【예루살렘16日AP=聯】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철수종결계획과 관련, 이집트·이스라엘 양국간의 국경획정문제를 논의하기위한 23인 이집트 군사대표단이 16일 시나이반도의 국경초소인 네오트를 경유,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이스라엘방송이 보도했다.

美·西歐 의견對立 시나이 平和維持軍싸고

【런던16日AP=聯】미국과 서구동맹국들은 시나이반도 평화유지군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대립을 드러내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6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견해소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수일안으로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노력이 실패할경우 내년4월 시나이반도로부터 전면철수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海外토픽 新聞신뢰도 急上昇 ★波, TV報道는 不信

폴란드국민들은 지난해 노동자들의 파업에따라 가열된 폴란드자유화운동이후 신문을 더욱 신뢰하고 있으나 TV보도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폴란드의 한 국가보조언론연구조사센터가 노조운동이래 처음으로 대중뉴스매체에 관해 조사한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그들의 신문을 더욱 주의깊게 읽을뿐아니라 신문보도와 관영통신의 보도를 구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있다는것.【바르샤바=聯】

文化短信 시나리오文學선집 崔琴桐씨 2권펴내

우리나라 시나리오문학의 개척자인 崔琴桐씨가 40여년간 써온 시나리오중 대표작을 골라「崔琴桐시나리오문학선집」(2권)을 펴냈다.

1권「쇠사슬을 끊을때까지」에는「安重根」을 비롯해 8편이, 2권「건너지 못하는 江」에는「榮山江」등 8편이 실려 있다. 이 평론가의 해설을 곁들여 菊版·각권 값6천원. (泰昌문화사刊)

"전통의 중국음식"
-CATHAY RESTAURANT-

● 모든 종류의 해산물 취급
● 유명한 중국인류 요리사
● 와보시면 압니다.

國泰酒家

10:30AM~11:00PM(화요일은 문닫음)
475-485 DUNDAS ST. W. 2층
전화: 368-2671~2

國華酒樓

● 술취급 합니다.
10:00AM-11:00PM(수요일 문닫음)
457-459 DUNDAS ST. W.
전화: 363-2305~6
(스파다이나×던다스)

제6주년 기념부흥회

강사: 이옥란 수도사
강사약력: ● 기두온 신학교 졸업
● 오순절 성결교 신학교 졸업
● 감린산 기도원원장 15년
● 수도원 수도 7년
● 장병 선교회 회장 12년간
● 현재 일본동경 신학대학 재학중

일 시: 1981년11월26(목)~29(일)
매일저녁 오후7시 30분부터
새벽기도: 토, 일(주일) 오전6시
신앙강좌: 28일(토) 낮12시
장 소: 16 THORNCLIFF PARK DR.
(Woolco, Miracle Shopping Plaza 뒤)

주최: 토론토기도원
원 장: 심상대 전 화: 226-2583

도상 동창회

성탄및 년말파티에 초대, 동문 여러분께 문안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과년말을 맞이하여 동창회 파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하오니 동문제위 께서는 필히 부부동반 하시어 옛정을 나눕시다. (청운중학 포함)

일 시: 1981년12월12일(토) 오후6시30분
장 소: 75 EMMETT AVE. TOR. ONT. M6M 5A7
연락처: 구진모 B)531-2236 R)886-0722
회 비: 부부 $20, 독신 $10

동창회장 신 성 열

大學마다 施設확장 한창

門戶開放따라 몰려드는 학생 收容대책 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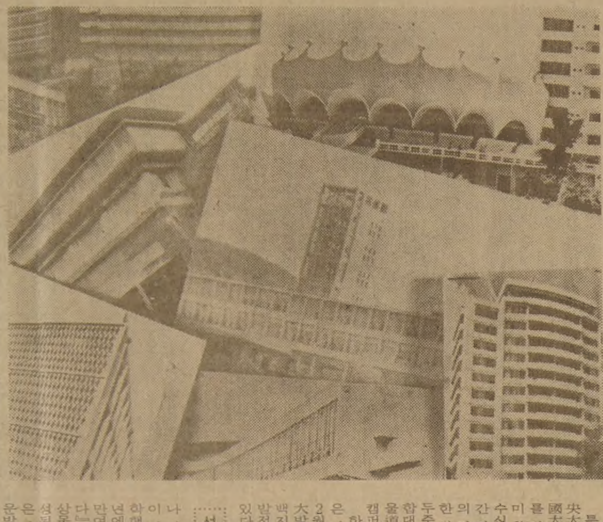
일부私大 수십억投資 경쟁

大學의 새 이미지 심는 찬스로

서울大 10年계획 白紙化 單大분리도 검토

高麗大 83년 강의실飽和 安岩洞에 새校舍

서울지역의 종합대학을 비롯, 지방의 주요대학들이 맹렬한 시설경쟁을 벌이고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대학문호의 대폭확대와 함께 급증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하는 현실적인문제도 심각하지만 많은대학들이 대학입학제도 변화와함께 향후 4~5년이 대학의판도를 바꿀수있는 절호의 기간으로판단, 각종장·단기계획을세워놓고 무리한 출혈경향을 보이고있는것.



◇대학입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서울지역의 주요종합대학들은 또한차례 맹렬한 시설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高麗大、成均館大、中央大、漢陽大、外國語大、檀國大、明知大등 지방에 분교를 갖고있는 사립대학들은이미 확보한 대지10·20만평에 수십억원씩을 투자,지난1년간 기숙사、강의실、실험실등의 건설과 조경사업에 상당한 진척을보여 시설경쟁에선두주자로 나섰고 금년에 종합대로 승격한 誠信女大는서울道峰區에 84년부터 대규모 캠퍼스를 조성키로했다.

한편 시설경쟁에서 한발늦은 서울大도 17일 지난79년 2월에 작성、추진해온서울大발전10개년계획」을 전면백지화하고 새로운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서두르고있다.

【서울大】 서울大당국자는 『금년 미달 사태가 있었다고는 하나 지난해보다 1천9백75명이 많은 5천2백88명이 입학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84년에는 현재보다 최소한 1만여명이상이 늘어나게 돼있다』면서 『이같은 사태를 예상못하고 지난79년2월에 작성된 서울大발전 10개년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해져 새로운발전 계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大는 이에따라 금년안에 교육시설·교육제도·교과과정등 각분야별로 관계교수들을 선임, 본격적인 장기계획수립에 착수해 정부에제출할 예정이다.

서울大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 대학인구의 대폭증가에따른 관리능력의 한계가 가장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지난75년冠岳캠퍼스로 이전함에따라 폐지됐던 1학년만을 분리교육하는 ▲교양과정부의 부활방안과 ▲師大등 일부단과대학을 서울大에서 분리、다른 국립대학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검토할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인원의 증가와함께 서울大의 현재 학생·교수의 비율은 지난해17대1에서 22대1로 늘어났으며 금년부터 전일수업제를 채택、상오9시부터 하오7시까지 점심시간도없이 수업하고있다. 강의실사정도 크게 악화돼 강의실 사용률이 중·고교의 수준(75%)에 육박하는 70%에 이르고있고 한 강의실의 학생수가 6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

【高麗大】 지난해 1만명、금년 1만2천여명에서 오는84년도에는 2만명으로 학생수가 늘어나게되는데、현 강의실 사정이 82년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83년부터는 악화돼 鳥致院분교외에 安岩洞에있는 학교소유부지 2만평에 새강의실을 증축할 예정이다.

【外國語大】 지난78년부터 2년간 총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장기발전계획위원회를발족、종합대학승격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금년부터 늘어난학생 수용에 차질은 거의없는셈. 外大는 지난해 5천1백47명에서 금년에 7천2백33명으로 늘어났는데 경기龍仁에 건설중인 종합캠퍼스의 일부가 완공돼 2학기부터 일부학과가 개강했다. 【金宗來기자】

◇대통령특사 盧泰愚정무장관이 16일 가톨릭교황청으로 교황 요한·바오로 2세를알현 한복차림의 부인과 함께 교황과나란히 포즈를 취하고있다. 【바티칸시티16일AP電=聯】

敎皇, 訪韓초청 受諾표명

【로마=聯】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순방중인 盧泰愚정무제2장관은 16일 낮12시45분(한국시간 16일 하오8시45분) 바티칸교황청으로 요한·바오로2世교황을 예방했다.

바오로교황은 이자리에서 盧장관으로부터 訪韓초청을 받고 수락의뜻을 표명했으며 한국의 국내안정과 발전、그리고 가톨릭敎界활동등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바오로교황은 특히 지난10월 천주교한국교구설정 1백50주년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데대해 이는 온 가톨릭세계의기쁨이라고말했다.

바오로교황은 또 한국을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국민들에게 축복이 깃들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金銅如來立像등 4천9백點발굴

慶州皇龍寺址 조사단

【慶州=聯】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가람(伽藍)인 皇龍寺址를 발굴조사중인 문화재연구소 慶州고적발굴조사단(단장 趙由典)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金銅如來立像을 비롯한 金屬類 2백80점、瓦塼類 3백16점、容器類 4천70점、기타 2백79점등 총 4천9백45점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중요출토유물은 높이 7·6㎝의 金銅如來立像1구、金銅製佛像臺座1점(높이5·6㎝)、青銅製佛頭1점(높이5·8㎝)、青銅製如來立像1구(높이3·4㎝)、青銅製香爐1점(높이5㎝ 직경10·5㎝)등이다.

오는83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실시중인 皇龍寺址발굴조사는 그동안 5억원의 예산을 들여 5만여평의 사역(寺域)중 1만9천5백평을 발굴조사했으며 연인원 7만1천8백85명이 동원돼 총2만9천80점의 각종유물을 발굴했다.

고단위 종합영양제 게미론 대웅제약

3~5명 組織공갈배 추적

금복주사건 5백만원 懸賞 公開수사

사투리 섞인 犯人電話음성 감정의뢰

【大邱=聯】 大邱 금복주 金洙瀚사장(55)집폭파사건을 수사중인 大邱中部경찰서는 17일 범인들이 3차협박편지를 보낸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金사장과 전화로 통화한내용을 녹음,음성감정을 의뢰하는한편 30대전후인 3~5명의조직공갈배가 2~3개월동안 치밀한계획을 세워 범행을저지르고있다고 단정,5백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3차협박편지에 따라 지난14일하오 서울에서 金사장과 범인들이 접촉할때를 이용、범인검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수사방향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金사장집폭발사건이 난것이 지난10월10일밤(토요일)이었으며▲2차협박편지에서 지정한 접촉날짜도 10월31일로 토요일이었고▲3차협박편지의 접촉지정일도 11월14일로 토요일인점으로 미뤄 범인들이 토요일을 주로 노리는 점에 착안、범인들은 봉급생활자일 가능성이 있는점으로 보아 회사원이나 공무원등으로 추정하고있다.

또 경찰은 1、2차협박편지에서 범인들이 대한상사신문지에 『신정가 계』등으로 쓴점으로 미뤄 타이머조작이 가능한 기계또는 부품공장과 관계가 있을것으로 추정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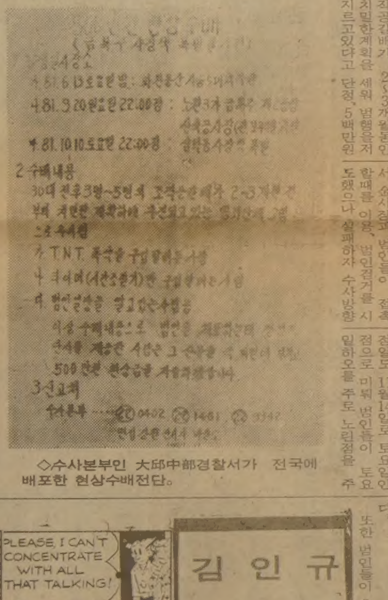
또 범인들이 3차편지의 발신지를 慶州로했고 전화내용에서 安東을 거론했으며 이번전화 접촉에서도 중앙선과 청량리역을 이야기한점으로 미뤄 경북동부지역과 관계가있을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지난14일 낮12시30분부터 하오6시30분까지 서울신라호텔등에서 6차례에 걸쳐 범인과 직접 통화를한 금복주사장 金洙瀚씨는『전화도 범인의 목소리는 전라도 사투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상오11시부터 20분동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金사장은『전화를 하면서 원한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범인은 시종 묻지말라』고 대답하는등 공갈협박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金사장은 또『범인과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보도기관에 공개할 용의가있다』며『음성을 아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줄경우 응분의 사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金사장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범인이 이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매우·초조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았다』며 금품을 노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사본부인 大邱中部경찰서가 전국에 배포한 현상수배전단.

우유 有効기간고쳐 市販

返品된 못먹는것…보급소장등 넷令狀

반품된 우유의 제조일자를 고쳐 시중에 되팔은 우유보급소 소장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鍾路경찰서는 17일 매일우유 西大門보급소장 金年桂씨(36·서울鍾路區杏村洞27의8)와 직원 金貞吉씨(29·서울 西大門區 天然洞금화아파트11동408호)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달아난 직원 李영봉씨(3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10월28일 보급소 사무실에서 제조일자가 10월7일인 매일우유 10개(2백㎖와 5백㎖)의 제조일을 10월15일로 고쳐 파는등 매달 평균 65개정도씩 모두 8백여개의 제조일자를고쳐시중에팔아왔다는 것。이들은화공약품인 아세톤을 이용、테트라팩(진공포장)에 찍힌 제조일자를 지운뒤 나무도장 35개를 이용、제조일자를 고쳐 찍었다.

종업원 朴美羅양(21)에 의하면 매일우유의 경우 지난5월까지는 반품된양의절반은 본사에서 직접 수거해가 폐기하고 나머지는 보급소에서 폐기처분해 왔는데지난10월1일부터는 배급받은 양의 0·2%를 보급소에서 폐기할수 있도록 인정해주어 이 과정에서 반품된 우유의 제조일자를 고쳐 시중에 다시 내다 팔았다는것.

이처럼 제조일자를고친 우유는 매일우유 西大門 보급소를 비롯 서울鍾路區通義、孝子、社稷洞과 西大門일대의 소매점에 팔아왔다.

경찰은 매일우유 본사관매과 직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주었는지의 여부와 다른보급소에서도 이같이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존기간이지난 우유를 팔고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있다.

蛤室어린이집방문 李順子여사 膳物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17일상오 서울冠岳區新林洞 蛤室어린이집을 둘러보고 유아들에게 크레파스와 유아복등을 선물했다.〈사진〉

무면허輪禍車主 운전사에罪씌워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17일 운전면허없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사가 사고를 낸것처럼 꾸며 대신 벌금형을 받게한 차주 金基煥씨(37·상업·서울江西區新亭2洞119의2)를 업무상과실치상및 범죄은닉교사혐의로 구속했다.

強·窃盜 폭력 늘어

11월들어 全國서 하루 2천여件 터져

釜山등 住宅街피해 50%

11월들어 보름동안 전국에서 강·절도、폭력등 각종 사건이 3만5천7백76건이 터져 하루평균 2천3백85건이 발생한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치안본부 발표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도 모두 3만5천7백76건이 발생、3만8천4백80명을 검거했는데 이중3천1백15명이 구속됐다는것.

또 발생장소별로보면 서울、부산을 비롯한 6개도시의주택가에서 50%이상 발생했으며 시간별로는 하오8시부터 12시사이에 집중발생했다.

6천만원까지補償 蔚州 輪禍회생자

【蔚山=聯】속보=지난14일 밤 경남蔚州郡熊村面大福里 부산~蔚山간 국도상 버스·트럭 3중 충돌사고로 숨진 11명에 대한 보상금이 유족들의 요구대로 호프만식계산법에따라 8백만원~6천만원까지지급키로 17일 타결됐다.

17일상오 10시부터 蔚州군청에서 열린 사고수습위원회는 3차회의에서 자동차보험측은 사망자에 대해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우선 장례비조로 40만원을 지급키로 유족、버스·트럭회사대표들과 합의했다.

印稅 안물고 책 덤핑販賣

미소出版 대표立件

서울西大門경찰서는 17일 작가의 작품을 단행본으로출판하면서 인지를 붙이지않고 시중에 덤핑으로 팔아온 서울鍾路區杏村洞 미소출판국 대표 郭正澈씨(40)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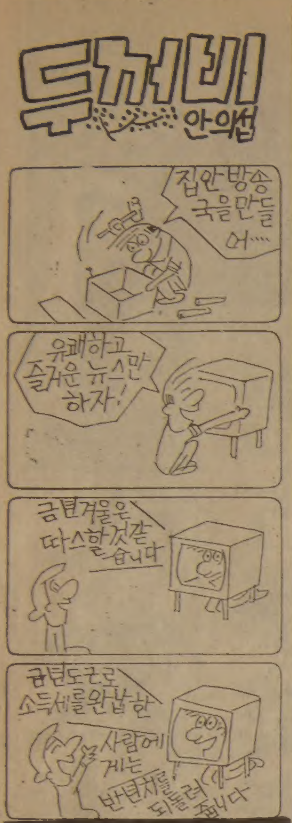
경찰에 의하면 郭씨는 지난78년8월 작가 朴基媛씨(50·여·서울恩平區佛光洞48의313)와 장편소설「情夜」의 출판계약을 맺고 단행본 5천부를 발행하면서는 계약된 인지대 8%를 지불했으나 그후에 발행된 3천여권에대해서는 인지대를내지않고 시중에 팔아왔다는것.

郭씨는 또 작가 朴賢玲씨(43·여)의 수필집「흐르는물에 물어보아도」와 金寧姬씨(45·여)의 장편소설「행복의 빈상자」、崔美娜씨(49·여)의 장편소설「매화틀」、李揆姬씨(44·여)의「돌아버린 눈물」등을 3천여권씩 모두 1만5천여권을 같은방식으로 출판、시중에 권당5백~8백원씩에 덤핑 판매를해왔다는 것이다.

羅州지방 배豊作 低價에 판매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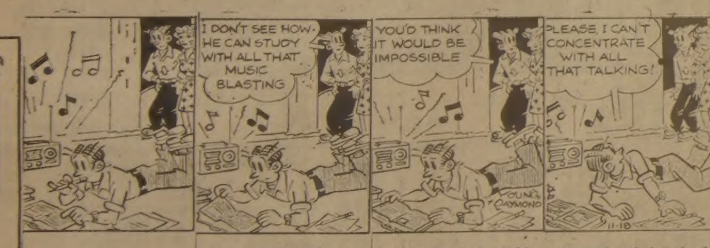
【錦城=聯】전남羅州지방의 특산물인 배가 풍작을 이룬가운데 값이떨어지고 판매마저 부진하다.

17일 羅州郡 원예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관내 1천350여농가에서 5백72㏊에 배나무를재배 지난해보다 11%많은 4천6백20여톤의 배를 생산했는데 가격은 ㎏당 50원가량 떨어진 6백50원선에 거래되고있으며 그나마 상인들의 발길이 뜸해 판매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라는것.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저렇게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고 어떻게 공부할수였는지 알수없단 말이야" "당신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제발좀, 얘기소리 때문에 정신집중이 안돼요!"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439-6717 김 남 집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416) 222-9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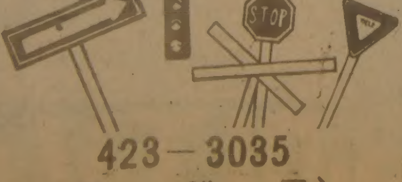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598-0451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Dear Mailperson :
Hi !
THE KOREA TIMES is a daily news-paper. I'm supposed to receive this newspaper every day.
Your co-operation will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Mr/Mrs ○○○
◇이 편지를 우편함에 붙이십시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368-4215. 368-0114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南北韓, 古代文物 교환展열자"

考古學·美術史 분야등 日中共과 共同연구도

李文公 資料교환등 3개항을 提議

李光杓문화공보부장관은 16일 ▲考古學및 美術史분야에대해 南北韓을 포함한 中共, 日本학자들에의한 공동연구 ▲古代文物에관한 南北韓간의 자료교환, 遺物의 상호교환展示및 공동연구 ▲南北韓의 古代文物에대한 海外展示공동개최등을 제의했다. 그는 이날 東洋文化圈에대한 南北韓을 포함한 中共, 日本학자들의 공동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제의하고 南北韓 유물교환전시의 방안으로 「그간에 발굴된 公州의 百濟武寧王陵과 慶州 古新羅의 天馬塚大陵및 雁鴨池발굴 유물을 平壤박물관에 일정기간 전시하고 그대신 北韓당국은 그간에 새로 발굴된 高句麗의 文物을 서울국립中央博物館에 전시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民族同質性회복에 시급한 事業"

◇南北韓의 古代遺物교환전시등을 제의하는 李光杓문공장관.

올림픽綜合계획 곧樹立

體育會 基幹組織등 改編도 당부

全대통령 새벽 泰陵村순시

"情報전달使命막중"

新聞·放送人과환담

美陸參總長 접견

"철도운영 私企業 형태로"

국회豫決委 對共産圈 공식관계로 發展추진

社告

제22회 한국出版文化賞

出品도서 접수마감 21일

良書운동의 길잡이

국민讀書 생활화

著作·製作2부문

한국일보社 제정 「한국出版文化賞」의 금년도 출품도서 마감일이 이번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한국出版文化賞」은 작금 부차원의 독서생활화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느때보다도 그뜻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出版文化賞은 우리나라 출판문화계가 不毛地帶와 같았던 지난1960년 가을, 「良書출판과 國民讀書」의 횃불을 높이 쳐든이래 21개성상을 거듭하면서 우리출판문화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牽引車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出版文化賞은 이제 良書출판풍토의 정립이라는 본래의 한과제를 다져놓고 새로운 國民讀書운동을 향해 나아가고있습니다. 출판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출품요령과 서상품목은 다음과같습니다. ★관련기사7면

◇施賞種目＝▲저작상(우수한저술을낸 著者또는 編者)—2명 안팎의 저자에게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제작상(우수도서를낸 출판사)—8개社 안팎에 상패

◇出品圖書＝1980년11월1일부터 1981년10월31일 사이에 간행된 新刊도서 (全集類는 이 기간중 完刊된것에 한함)

◇심사요령＝출판사 또는 著·編者가 출품한 도서를 한국일보社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접수장소 및 마감＝11월21일(土) 하오6시 한국일보社 편집국 문화부 (서울鍾路區中學洞14·우편번호 110)

한국일보社

附價稅개정 내년에 論議

稅法小委 활동연장 所得稅공제등 審議난항

周국방·美육참총장 韓美軍事 懸案논의

社會漫評

이런건 어떻소?!…

地平線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體

모든 購買活動의 65%는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國內唯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흑지재질을 願하시는 廣告主 여러분의 廣告下命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주간女性

(416)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열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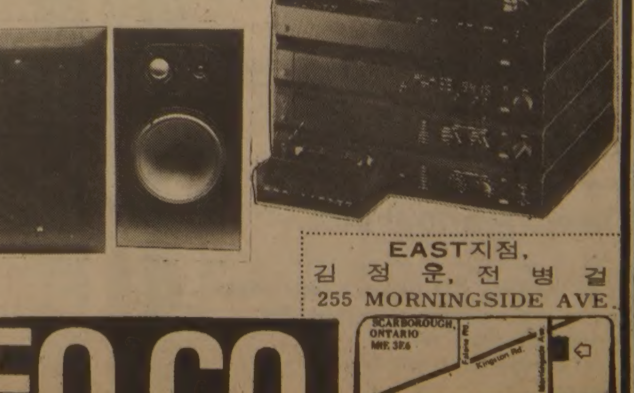
TELEFUNKEN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SPECIAL SALE
특별할인

FEATURES:
BRAUN P-1 TURNTABLE: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WEST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 WESTON RD / HWY401 / HWY400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정운,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282-2820

콜럼비아號 내년 두차례 飛行

男女6명탑승할 챌린저號 82년12월에 發射

◇地球에돌아온콜럼비아號 美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의 조종사 조·엥글대령(왼쪽)과 리처드·트룰리(중앙) 대령이 14일 에드워즈공군기지에 무사히 귀환한뒤 동체를 살펴보고 있다。【에드워즈공군기지(캘리포니아州) 14日AP＝聯合】

15m의 로보트팔등 歷史的실험成功

3次땐 太陽관찰·宇宙船 環境연구

飛行시간 短縮의 최대 손실은「名譽실추」

사뿐히 내려앉아

【에드워즈공군기지(美캘리포니아州)15日UPI＝聯合】미국의 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는 연료전지이상으로 인한 비행일정의 단축에도 불구、36회의 궤도선회비행중 우주이용과 인공위성의 우주배치및 회수에 이용될 로보트팔의 작동실험등 ▲최소한의 지상통제를 통한 궤도복귀 가능성규명 ▲콜럼비아호의 우주통근가능성입증을 위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장차의 우주여행에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입수한후 총54시간13분의 비행일정을 마치고 15일 새벽6시23분(한국시간 오후11시23분) 캘리포니아 모하비사막의 에드워즈공군기지에 무사히 착륙했다。

각종실험90%성공

【케이프카나베랄(美플로리다州)15日AP＝聯合】지구궤도를 선회하면서 각종 실험을 성공리에 마친 미 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2차비행은 예정보다 단축됐으나 …

앞으로의飛行계획

【케이프카나베랄(美플로리다州)15日UPI＝聯合】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의 2次비행 성공은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점에도 불구、우주여행의 새 장을 열어 놓았으며 …

◇환영하는 群衆에답례 제2차우주왕복비행을 마친 美콜럼비아 우주선의 두승무원 조·엥글(左)과 리처드·트룰리(右)가 그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손을흔들어 답례하고있다。【에드워즈공군기지14日AP＝聯合】

「宇宙企業時代」가 열린다

콜럼비아號계기、새 植民地로 눈독

美製藥업체 이미 계획着手

자체軍·警지닌 超國家재단

佛、가다피暗殺계획

年初 美에提出…미테랑執權후 취소

타임誌 報道

【뉴욕16日聯合＝特】프랑스는 금년초 가다피리비아국가원수의 암살계획을 미국에제출했다가 뒤에 이를 취소했다고 시사주간지타임이 16일자로 보도했다。

이잡지는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데스탱 전 대통령집권당시의 고위 프랑스관리가 이계획을 지난2월 미국에 휴대하고 왔었다고 말했다。이 계획에대한 미국의 결정이 내려지기전인 지난5월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당선으로 이계획이 취소 되었다고 이잡지는 전했다。

레이건狙擊 힝클리 刑務所서 自殺미수

【워싱턴15日AP·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의 암살미수범 존·힝클리(26)가 15일 수감중인 군형무소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나 병원에 급송돼 생명을 건졌다고 톰·디케어법무성대변인이 발표했다。

"中共의 統一제의 重大의미"

헤이그演說 臺灣聯邦주의등 認定에

「새解決방법」으로評價

對臺灣F·16機판매엔 언급없어

【워싱턴14日AP·AFP＝聯合】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은 14일 臺灣과의 통일을위한 중공당국의 최근제의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 새로운 문제해결접근방법이라고 평가했다。

◇美공정대의 낙하산投下 14일 시작된 美·이집트합동 군사훈련에 참가중인 美공정대원들이 카이로근교사막에 낙하산으로 투하되고있다。【카이로UPI特約＝聯合】

"美·中共 관계强化 중요"

레이건、訪中리건財務통해 메시지

엘살바도르 게릴라 武力으로 退治필요

美남부군司令官

"이스라엘認定"은 잘못

사우디 中東平和案관련 유엔大使발언 否認

【리야드16日路透＝聯合】사우디관영 SPA통신은 16일 사우디정부가 자국의 8개항 중동평화안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했다는 가파르·알라가니 유엔주재 사우디 대사의 발언내용을 부인했다。

蘇간첩들 美서暗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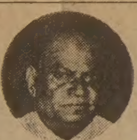
英선데이 타임즈 白堊館과 밀접…副統領연설문도 作成

【런던16日UPI聯合＝特】익명의 소련간첩들이 미국에서 수년간 암약하며 백악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한편 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해주기까지 했다고 영국의 선데이·타임즈紙가 16일 보도했다。

멕시코서 벽무너져 1百여명 死傷

"美軍基地 받드시 撤收해야"

그리스、헤이그發言반박 再確認



◇사타르 대통령당선자

사타르 壓到的당선 방글라大統領 선거

美의사들 史上최초

母體밖서 胎兒 수술후 다시 子宮에 안치成功

레이건、두번째搭乘 「최후의날 航空機」

메아리

殉國先烈의 날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 BLOOR ST·W
☎ : 534－2003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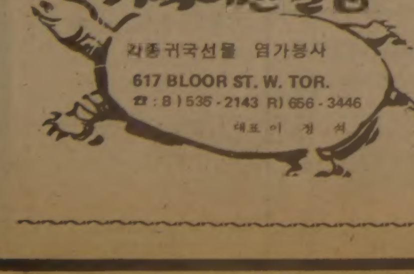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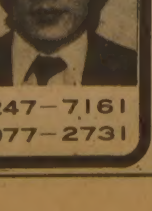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 ·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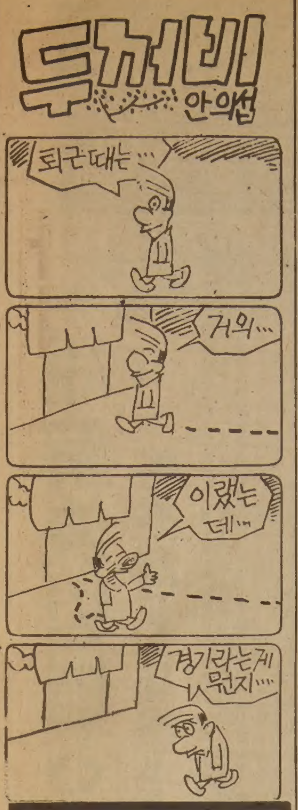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武術사범이 館長살해 暗葬

경영권쟁탈 시비끝에 7토막…道場맨홀에

大邱 新川洞 중흥국수관서 50일만에 발견

◇토막시체를 암장했던 맨홀(점선부분)과 범인 鄭씨. 【大邱=聯】

【大邱=聯】무술도장의경영 주도권을 다투던 무술사범이 무술관장을 살해한후 시체를 식칼로 토막내 암장한사건이 범행 50일만에 밝혀졌다. 大邱市東區新川3洞265 외2 大邱華僑청년반공구국회부속도장인 중흥국수관 관장 金正民씨(34·중국 십팔기 7단)가 살해된뒤 토막시체로 무술관지하실 도장입구맨홀에 암매장되어있는것을 동생의행방을찾고있던 金관장의형 金正元씨(36·강원高城郡高城邑)가 15일하오6시30분께 발견, 大邱東部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를받은경찰은이무술관관원10명을불러수사끝에 이날밤11시께 수석사범 鄭慶鉉씨(22·십팔기3단)로부터 범행일체를자백받고 시체를 매장했던 근처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쇠망치와 식칼등을 찾아냈다.

경찰에의하면 범인 鄭씨는 지난9월26일밤 11시50분께 술에취해 도장지하실방에 들어갔다가 金관장으로부터『이틀동안 체육관을비우고 어디를 다니느냐』는 꾸중을듣고 『무슨간섭이있어 시비를 거느냐』고 대꾸, 서로 입씨름끝에 金관장이 갑자기 방에 있던식칼을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위협해 『왜 이러느냐』며 몇차례피했으나 金관장이 계속 칼을휘둘러 호신용으로 갖고있던 무술용쇠망치로 金관장의 머리를 3차례내리쳐 숨지게 했다는것이다. 鄭씨는 金관장을 살해한뒤 2홉들이 소주2병을 마시고 시체를 방안으로 옮긴다음 목과 팔·다리등으로 시체를 [illegible]

社長 약속장소서 허탕

"2억갖고 나오라" 3차협박편지·電話

주간 복사 금품

오늘 搜査전모발표

【大邱=聯】속보=금복주사장 金泓權씨(55)집에 지난12일 3차협박편지가 날아든사실이 16일 밝혀졌다. 金사장 둘째딸 김경순양앞으로 우송돼온 이협박편지는 또박또박한 글씨체로『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14일낮 서울 호텔신라에서 연락을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노트용지에 붉은 사인펜으로 쓴 협박편지는 14일 상오 7시 정각에 둘째딸 경순양을 승용차에 태우고 12시까지 호텔신라에 도착한뒤 경숙양 이름으로투숙,『12시후에 우리들의 연락을 기다리란』고 요구했다. 협박편지를 받은 金사장은 14일낮12시 신라호텔 1425호실에 투숙, 이날 하오6시까지 모두 4차례에걸쳐 범인들과 통화를하고 직접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범인들은 전화를 걸어 金사장에게『돈이 필요하다』면서『청량리 역 앞 다방에서 만나자』고 요구, 金사장이 정한다방으로 나가자 다시 다방으로 전화를 걸어와『안동역앞 우동집앞에서 1천만원을 갖다놓으란』고 말했다. 金사장이 [illegible] 요구대로 安東행 우동열차에 돈보따리를 갖고 [illegible] 나지 않았다.

한편 강신칠 大邱시경국장은 16일하오6시 시경국장실에서 이사건 피해자인 金사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사본부장인 김봉중부경찰서장이 [illegible] 17일상오10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 공식 발표키로 했다.

高校에도 弱視學級

서울市敎委 내년 汝矣島高에 0.3以下

서울시교위는 16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등부약시학급을 汝矣島高에 설치하고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한다.

지난79년 汝矣島中에 설치한 약시학급에 입학한 학생들이 내년2월 졸업하게됨으로써 설치하게된 고등부약시학급에는 汝矣島中 약시학급을 졸업했거나 일반 중학을 졸업했더라도 양쪽눈의 교정시력이 0.04~0.3으로서 울시 학교건강관리소에서 약시판별을받은 학생은 진학할수있다. 시교위는 汝矣島高에 특수교실을 내년2월말까지 만들계획이며 학생들에겐 교과서등도 무료배부할 계획이다.

가짜휘발유 제조 팔아온정비공 拘束

서울 麻浦경찰서는 16일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어 휘발유라고 속여 팔아온 서울江南區驛三洞82의15 강남간이주차장정비공 金在淳씨(20·麻浦區新孔德洞2의322)를 도로운송차량법및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주차장주인 金東圭씨(3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달 2일부터 주인 金씨와 함께 솔벤트와 톨루엔 5천원어치를 섞어 만든 가짜휘발유를 [illegible] 택시운전사 오광수씨(30)등 택시운전사들에게 휘발유라고 속여 모두 45드럼을 4백5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는것이다.

課外수업받다 적발된 서라벌高生

학생停學·敎師파면

서울시교위는 16일 과외수업을 받다 적발된 서라벌高 1년 李俊錫군을 무기정학시키도록 조치하고 李군을 가르친 서라벌中 吳國雲교사를 파면토록 했다.

시교위는 또 서라벌중·고의 교장인 朴仲熙교장을 [illegible] 학생지도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토록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한편 시교위는 李군이 다니던 서라벌高 金榮植교장과 金英哲교감은 소속직원및 학생지도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 李군은 지난 3월2일부터 7월22일 사이 중학담임교사였던 吳교사에게 매주 1회 2시간씩 수학과목 과외교습을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航空料金 면제

우수大學生 해외연수

겨울放學 4백50명

교통부는 16일 해외연수대학생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번 겨울방학 해외연수때부터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4백5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항공의 협조를얻어 [illegible] 제외한 모든노선의 항공요금을 무료로 해주기로했다.

"새로 낳은 네 아기여동생잘있니, 엘모야?" "병원에서 집으로 온 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왜 네여동생이 그럴게 많이 운다고 생각하니?" "머리칼도 이도 없고 언제나 오줌만 싸면 이 저씨도 울기만 할꺼예요"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레저의 廣場 롤러스케이트場

變態영업 10代脫線 유혹

자극적 音樂…곳곳에 「不良」·

담배피우고 술마시기도

聖誕철야쇼·미팅會員모집

학교밖에 갈곳이없는 10代들에게 새로운 스포츠및 레크리에이션장소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일부업소의 변태영업으로 말썽을 빚고있다. 지난72년 大邱에 6백평규모의 전용링크가 처음 만들어진이래 지난 5월말현재 전국에 8백98개소로 늘었고 6월부터 개설이 자유화하면서 더욱 증가, 현재 서울에만 1백여군데가 넘을정도로 붐을 이루고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운동겸건전한 레크리에이션 사교장이란점에서 바람직스럽지만 일부업소의 변태영업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도하거나 탈선10代의 아지트로 변해가고있어 건전하게 유도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즐겨찾는 선량한 학생들은 관계당국이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 8백98곳·서울에만 1百여곳이나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은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음악과 조명에 들떠 흡연·남녀 댄스등 탈선을하는 바람에 건전스포츠로서의 본래취지를 잃어가고있다. (사진은 기사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서울江東區 S롤러스케이트장은 40여일을 앞두고 벌써 부터 연말과 성탄절 전야 특별쇼를 열기로 기획, 2천원짜리 회원권을 예매중이다. 하오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철야로 예정된 프로그램은 모두 7부로 구성돼있으며「디스코·고고춤」및「젊음의 미팅」을 내세워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곳에온는 청소년들은 공휴일의경우 3백여명으로 6대4정도로 여자가 더많은데 하오9시에 끝나는 영업시간의 막바지에는 사복차림의남녀학생들이 음악에맞춰 함께 춤을추며 구석진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들도 많다.

서울江南區 J롤러스케이트장의 경우 보유한 롤러스케이트만 5백켤레. 없는듯이 거의없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복차림의 남녀학생이 함께 춤추며 어울리기 일쑤. 환경이 좋지않은 야외스케이트장 주변에서는 술을 마시기도 한다.

S중3년 金모군(15)은 10여일전 집근처의 Y롤러스케이트장에 갔다가 같은또래 3명에게 현금3천원을 뺏기기도 했는데 밤이면 이같은 불량청소년들이 떼지어 술을 마시고 있다는것.

지난3일에는 서울東大門區踏十里5洞498 J예식장5층링크에서 재수생 K군(16)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C중3년 K모군(15)과 충돌하자 칼로찔러 중상을입히는 사고도 있었다.

최근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즐겨찾던 여중생 2명이 무단가출, 5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 학부모들까지 걱정하고 있다. [illegible] 서울江南區城內洞 Y여중3년 閔相淑양(16)과 安貞玉양(15)은 지난 9월26일 토요일 수업을마치고 하오1시30분께 부근의 S롤러스케이트장에가 놀다 집에 돌아와 閔양집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출, 50일이넘도록 돌아오지 않고있다.

閔양의 어머니(44)에 의하면 이들은 가출하던날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교사에게 적발되어『월요일에 교무실로 오라』는 말을듣고 집에 왔다가 나가버렸다는것.

롤러스케이트장은 종전까지 시설기도 했는데 지난6월2일부터 스포츠·레저활동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허가가 나왔는데 이 규정대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은 스케이트장이 늘어났다.

일선학생지도교사들은 차량을 막을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스케이트장측의 입장거절등 비협조로 지도활동에 애로를 느낀다고 말했다. 【任錫淳기자】

派出所 悠부수며 亂動

"연행한 無錢取食친구 풀라"

20代 2명 가위들고…도주

16일하오9시께 서울東大門경찰서 휘경파출소에 술에취한 20대청년2명이 난입,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두르며 이파출소에 연행된 친구 배상민씨(22)를 풀어 놓으라고 협박하고 유리창을 깨는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리다 달아났다.

당시 이파출소에는 야간근무인 李정석순경(26)과 방범대원·전경대원등3명이있었는데 20대청년들은 파출소의자에 앉아있던 배씨와 합세해 전경대원에게 가위를 들이대고「죽고 싶으냐, 너희들 마음대로해보라」는등 소리를 지르면서 정문유리창2장을 깨고 재떨이를 던지며 파출소책상을 부수는등 약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경찰관이 주춤하는 동안 문을박차고 달아났는데 배씨는 파출소에서 70m쯤 떨어진 골목길에서 붙잡혔다. 배씨등은 이날 하오7시30분께 鍾路區連建洞190의30 넘블경양식집(주인 蔡順子·51)에서 친구 7명과 함께 맥주와 안주등 7만5천원어치를 시켜먹고 각자 달아나기시작, 배씨만 남았다가 주인 蔡씨의신고로 파출소에 연행됐었다.

「面會후 自白」否認

高여인公判서 被告측증인들

서울龍山區元曉路 尹景花씨(62)일가족피살사건의범인으로 구속기소된 高淑鍾피고인(46)에대한제4회공판이 16일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형사14부(재판장 金憲武) 심리로 열려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및 변호인측의 증인신문내용은 高피고인이 8월26일 검찰에서 한2차 자백진술이 가족및 친지와의 면회전에 이뤄졌는지 면회후에 이뤄졌는지에 관한 高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여부와 사건당일의 알리바이부분에 집중적으로모아졌다.

高피고인의 남편 尹永培씨(47)와 장녀尹美順양(19·가명)등은 『면회를 8월26일 상오에 한것은 사실이지만 면회당시 高피고인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 검찰의『면회후 자백을 받았다』는 주장을부인했다.

河형사 拘束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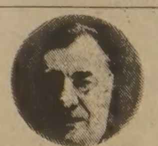
업무상 횡령혐의

서울지검형사1부 朴鐘苗부장검사는 16일 尹景花씨피살사건 현장에서 정기예금증서 3장(액면 5백50만원)을 훔친혐의로 구속된 전龍山경찰서 수사과 河英雄형사(41)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佛 콩쿠르賞 보다르 受賞

【파리16日AP=聯】프랑스에서 가장 권위있는 공쿠르문학상이 16일 자전적소설「안느-마리」를 쓴 뤼시앵·보다르(67)에게 수여됐다.

공쿠르 문학상자체의 부상은 오찬과 현금 50프랑(약6천5백원)에 불과하나 수상작품은 최소한 25만부의 판매를 보장받고 있어 이상은 작가에게 돌아가는 [illegible]


◇뤼시앵·보다르

금년도 수상자인 보다르는 73년 자신의 중국에서의 성장과정을그린 소설「염사귀」로 앵테랄리에 문학상을 수상한바 있다. 공쿠르상 수상작「안느-마리」는 작자제목과 동명인 그의 모친 밑에서 자라났던 성장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한편 금년도 르노도문학상은「신령의 밤」을 쓴 미쉘·델·카스티요(48)에게 돌아갔다.

收賂額 확인

서울市 운수과不正

서울시교통국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수사대는 16일 행방불출된 서울시교통국입석버스노선담당주사 李敏五씨(32)가 서울여객대표 朴鐘鶴씨로부터 노선을변경해준 사례비로 1백30만원을 받았고 좌석버스 노선담당 朴鍾仁씨(31)가 鄭成운수(대표 金相文)로부터25만원, 서울여객에서 10만원을 각각받아썼으며 후생계장 崔永煥씨(32)도 서울여객에서 10만원을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許永模·張壬錫결승에

월드컵복싱 銀확보…金南熙는 KO敗

【터론토(캐나다)=聯】한국의 許永模(라이트플라이급)와 張壬錫(밴텀급)은 16일(한국시간) 이곳에서 벌어진 제2회 월드컵국제아마복싱대회 준결승전서 각각 판정승, 두선수 모두 은메달을 확보했다. 許永模는 결승전서 [illegible] 張壬錫은 [illegible] 선수와 대결한다. 17일에는 [illegible](라이트웰터) 金南熙(웰터급)이 각각 준결승에 나간다. 金南熙는 [illegible] KO패했다.

北韓에 분패

킹스컵쟁탈 蹴球

【방콕14日=聯】한국은 14일 이곳에서 벌어진 제14회 킹스컵쟁탈 국제축구대회 6일째 남북대결에서 북한에 [illegible] 2패를 기록하여 4강진출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로써 제18회 아시아 청소년대회(76년4월·방콕)때부터 시작된 축구 남북대결은 [illegible] 한국 1승1무2패로 되었다.

比 펠비에스카制壓

金嗣王 6回KO勝

【淸州=聯】金嗣王은 15일 淸州實內體育館에서 벌어진 재기2차전에서 필리핀 주니어라이트급 3위 펠비에스카를 6회1분6초만에 KO로 제압했다.

거 구 장

巨龜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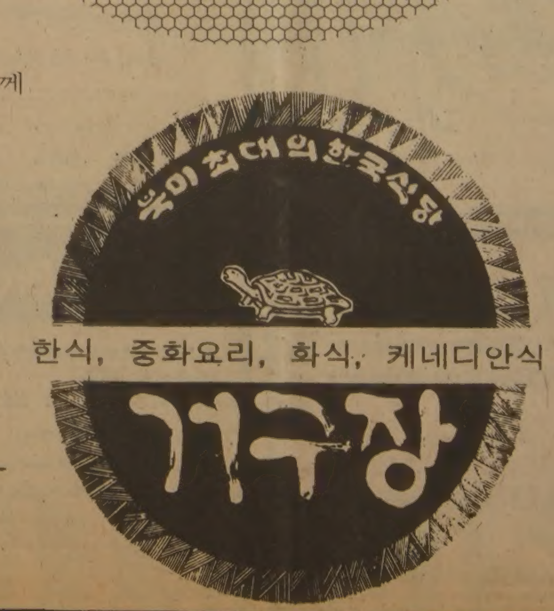
저희 거구장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가 거구장을 새로 경영하게 되었음에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오며, 과거의 미숙한 점은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 사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한 영 올림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회갑·생일파티·동창회등 각종피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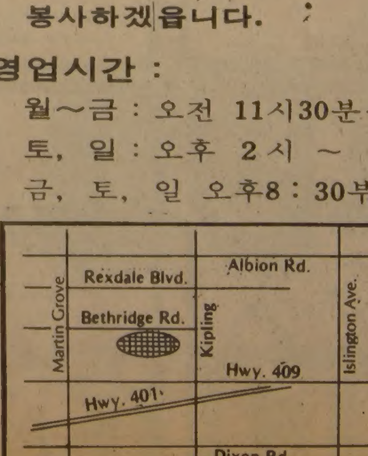
● 크리스마스및 망년파티 예약은 염가로 봉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오전 11시30분~새벽2시까지

토, 일 : 오후 2시 ~ 새벽2시까지

금, 토, 일 오후8 : 30부터 신현회와 그의 악단출연



한국、쿠바꺾고 5位

월드컵女子배구 邊京子·李云任 분전

【日本16日=聯合】한국이 쿠바에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3승4패를 기록, 5위를 차지했다。16일 日本 오오사까(大阪) 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3회 월드컵여자배구선수권 주장 邊京子의 폭발적인 강타와 세터 李云任의 절묘한 토스, 공수에서의 부진으로 추격을 개시, 2시간 1분만에 경기를 역전시켜 함께 2승4패씩을 기록했던 쿠바를 6위로 밀어냈다。

세트스코어 2-2를 기록한뒤 한국은 마지막세트에서 노장들을 기용, 체력과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쿠바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하고 상대실책과 邊京子·金花福·陳春梅등의 강연타공격으로 9-1, 13-2까지 크게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부심의 일방적인판정과 우리측 공수실책으로 6점을 잇달아 허용, 13-8까지 쫓기다가 상대공격실책으로 14-8, 확고한 리드를 잡았다。

쿠바는 무서운 공격력, 진 페레스가 오픈 강타로 2득점한뒤 또다시 중앙속공으로 1점을추가, 14-11까지 육박, 한국진영을 긴장시켰으나 이어 李恩敬이 왼쪽에서 상대수비 헛점에 연타공격을 퍼부어 역전승을 거두었다。

한편 한국은 15일 교오또(京都)에서 벌어졌던 6차전서는 불가리아에 전세트를 뺏어 14점만 허용하고 승리했었다。

◇최종일 전적

한국 3 (15 15 15 7 11 / 11 11 10 15 15) 2 쿠바
(3승4패) (2승5패)

◇제6일 전적

한국 3 (15 15 15 / 3 6 5) 0 불가리아
(2승4패) (6패)

한국、日대파

亞洲남자농구 91對71로
速攻·個人技월등

【캘커타15日韓=聯】韓國은 15일 캘커타에서 속행된 제11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ABC) 결승리그 1차전에서 라이벌日本을 91-71로 대파하고 1승을 기록했다。

전날 C조 예선 최종전에서 강호 필리핀을 89-62로 꺾고 3전전승으로 결승리그에 진출한 韓國은 이날 속전속결의 빠른 팀플레이로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친끝에 전반 44-34, 후반 47-37로 20점차의 대승을거뒀다。

韓國은 이날 주장金東光의 뛰어난 리드로 주전전원이 고른득점을 올려 2m25의 장신 야스까다와 관동오에 의존하는 日本을 손쉽게 대파했다。

韓國은 이날 李忠熙가 39점, 李珉鉉이 16점, 金東光이 14점을 올렸으며 네타시체육관에 운집한 관중들은 ABC대회사상 처음보는 韓國의 놀라운 속공과 화려한 개인기에 수차례 기립박수를 보냈다。

通信개선책등 논의
편집·보도局長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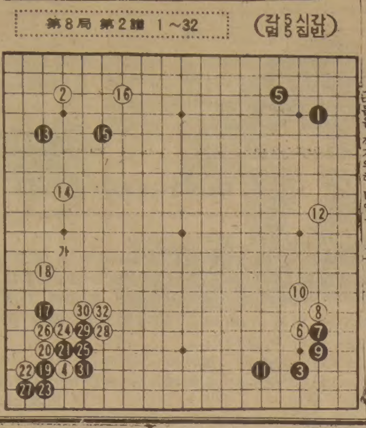
제1회 전국 新聞, 放送 발행인및 편집·보도국장 회의가 16일 서울 世宗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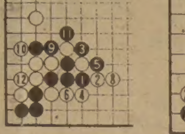
聯合通信 주관으로 전국의 11개 日刊紙와 23개 放送社, 5개 서울 常駐外信 契約社등에서 언론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通信社와 株主社(신문·방송)간의 유대강화및 협조증진방안, 通信업무 개선을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주로 通信 발행 개선책과 通信전달 수단의 개선책이 토의됐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 第2譜 1~32 (각 5시간 덤 5집반)

白 (7段) 河 燦 錫 〈1敗〉
黑 (7段) 徐 奉 洙 〈1勝〉





河7단은 경남합천태생으로 올해32살。63년 14살때 東京에 건너가 그곳 한국대학을 졸업했다。원래목적은 바둑수업이었기 때문에 渡日한 그해 12월, 일본기원연구생이 되었다가 66년에 초단입단 70년에 4단에 오른자병역관계로 귀국(그러니까 曺薰鉉8단, 趙治勳名人·本因坊들과는 일본서 같이 자란 동료이다)、새로 한국기원 4단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것이다。

그동안 각종기전에 고루출전했고특히 73년에서 74년사이에는王位·國手, 棋王位등을 쟁취하여 전성기를 과시했다。그러나 근래에와서는 약간 부조에 빠져 타이틀은 손에넣지 못하고 다만 각기전에서 중위이상의 성적을 올리면서 재기의 기회를 보고있는 중이다。

河7단에 관하여는 새삼소개할 필요도 없겠지만 오랜만에 복귀한 名人戰인까닭에 간추려적어두었다。

造化를 內包한 白勢

바둑을보면 白16까지 교과서식의 포석이었다가 黑17서부터 책략을 쓰게 된다。17의 뜻인즉 白이 즉시 20자리에 응하여 귀를 지킨다면 黑「가」로 벌림겸 白14를 협공하려는 것이다。따라서 白은 18로 역습、이렇게 되면 黑19하는 당연한 진전이다。

黑27때 白28이 강수였다。黑도 29에 일단 젠 다음 31로 되돌아 온것은 正手。이수로 참고도의 黑1、3은白4이하12(도중 黑7이음)로서 黑귀가 망한다。

따라서 白32까지는 必然이나 장차 중앙 白세가 조화를 부릴것같다。【一凡】

流星의 賦 <23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②

수길의 일본 통일은 무력(武力)만 갖고 된것은 아니다。한편 전쟁, 한편 위협, 한편 유화(宥和)등의 술수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수길에겐 사람의 의표(意表)를 찌르는 재능이 있었다。예컨대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삼전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의 뒤를 받아 대세를 잡기는 했으나 동북(東北)의 제후(諸侯)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무렵, 수길은 경도(京都)에 신저(新邸)를 마련하고 제후들을 초청했다。그 가운데 가장 난물(難物)은 덕천가강(德川家康)이었다。덕천가강은 관동(關東)에 웅연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물이었다。

수길은 덕천가강을 움직이기만 하면 성사(成事)가능하다고 보았다。그래서 덕천가강을 초대할때 자기 어머니를 인질(人質)로 보냈다。

어머니를 인질로 하고까지 초청하는 수길의 제안을 거절할수가 없어 덕천가강은 경도에 갈것을 승낙했다。동국의 제후들은 덕천가강의 눈치만 보고있던 터라 덕천가강의 태도를 보고 모두 수길의 초청에 응했다。

내일 연회가있을 전날밤。수길은 밤중에 몰래 가강의 숙소를 찾았다。잠에서 깨어난 가강앞에 수길은 평신저두 빌었다。

『수길이 오늘 영광으로 대접받고 있기는 하나 근본을 따지면 미천한 출생입니다。내일의 연회는 존귀한 어른들을 모시는 자리온데, 초청은 했읍니다만 어찌해야 좋을지 몸둘바를 모를 지경이옵니다。그러하오니 내일 그자리에서 무슨실수가있어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안심하고 몸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다。덕천가강으로선 그만한 일로 자기를 찾아준것이 갸특하기도 해서

『내일의 자리는 귀하가 베푸는 것 얼마든지 뽐내셔도 좋지 않겠읍니까』

하고 간단히 승낙했다。

드디어 연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수길의 태도가 너무나 방자했다。방약무인 못할 것과 못할 말이 없었다。이미 그의 지배하에 들어간 제후들도 불쾌하게 여길 정도였으나, 아직은 대등한 입장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제후들의 불쾌함은 형언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덕천가강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차가운 태도로써 앉아 있었다。물론 말도 하지 않고 주효(酒肴)에 손을 대지도 않았다。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럴순 없어 견디고 있는 참인데 수길이

『가강。정장은 처 뽐내고만 있지 말고 한잔 하라』

며 가강 앞에 잔을 쑥 내밀었다。아찔한 순간이었다。그 잔을 받으면 가강이 수길에게 신속(臣屬)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모두들 그럴 순 없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덕천가강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바를 몰랐지만 어젯밤의 약속이 돌연 상기되었다。마음대로 뽐내도록 하라고 가강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가강은 그 잔을 받으며

『황공하오이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대사는 결정되었다。

동부(東部)에 할거한 20여 제후는 수길에게 항복하여 신속(臣屬)할 결정을 마음속에서 내렸던 것이다。

모눈종이위의 生 <255>

趙善作 作
金光培 畵

모눈종이위의 生 ㉒

한동안 나는 창밖의전망을 마주하고 서있었다。마침내 나는 스카이 라인 아래의 어둠속에서 스카이웨이의 굽이를 지나는 자동차의 불빛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마치반딧불처럼 흐리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연약한 빛이었다。몇개의 그런불빛에 매달려있다가 마침내 나는 커튼을 닫고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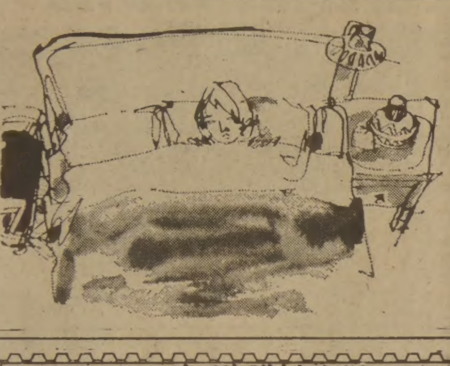
나는 서두르지않으면 안되었다。이튿날 아침까지 돌이킬수없는 주검으로 남아있으려면 내게 그렇게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으니까。나는 욕실로 가서 욕조 가득히 물을 받았다。청결한 몸으로 죽어 이튿날 아침에 주검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나는 북악P호텔을 죽음의장소로 선택하면서 이미 해두었던 것이다。

나는 아주 청결하게 몸을 닦았다。욕조 뒤의 거울에 비친 내 육체는 더운 물에 익어 마침내 핑크빛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것은 내게 소유욕마저 불러 일으켰다。그러나 나는 재빨리 거울에서 눈을 돌렸으며, 내 자신의 육체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결별했다。

욕실을 나오기 전 나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해본 일이 없는 향수를 몸의 구석구석에 뿌렸다。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했기 때문인지 나는 조금 취하는 듯한 느낌이었다。욕실에서 나와 나는 벗어두었던 옷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걸쳤다。옷 위에도 나는 약간의 향수를 뿌렸고, 어딘가 구김살이 없나 앞뒤로 화장대의 체경에 비쳐 보았다。옷맵시는 흡족할만큼 단정했다。

물병은 침대 옆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종이로 포장이 된 유리컵 두개도 나란히…나는 핸드백 속에 깊이 간직하고있던신경안정제봉투를꺼내들고 탁자앞으로갔다。나는 그것을 다섯 개씩 헤아려 여러 번에 나누어서 물과 함께 삼켰다。물론 나는 알약 몇개를 탁자 위에 떨어뜨려 두는 일도 잊지는 않았다。잠시나마 혹시 타살일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나와 관련이 있던 무고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돌리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 것이다。

탁자 앞의 보조의자에 앉아 그런 일을 모두 끝낸 나는 먼저 도어 쪽으로 갔다。실린더는 잠겨 있었다。그 위에 나는 체인 식으로 되어 있는 문고리를 걸었다。그리고 그곳에 있는 스위치를 내려 방의 주등(主燈)을 껐다。다시 탁자 쪽으로 돌아오며 나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완전범죄의 범인 같다고 생각했다。탁자 앞에서 나는 탁자 위의 잔등을 껐다。그러자 침대 위를 비추는 매입등만이 은은하게 살아 있었다。



잠시 서 있던 나는 침대로 갔고, 모포와 시트를 한꺼번에 잡고 깊이 걷어냈다。그런 다음 나는 구두를 벗고 침착하게 침대 위로 올랐다。출렁하는 쿠션의 쾌감이 나를 조금은 기쁘게 했다。나는더블베드의한가운데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다。

침대를 비추는 매입등의 스위치는 침대 머리맡의 벽에 붙어 있었다。나는 팔을 등뒤로 뻗어 매입등 스위치의 핸들을 잡았다。처음에는 회전방향을 헛갈렸기 때문에 침대의 조명이 더욱 밝아졌고 반대로 돌리니까 점점 흐려지다가 마침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모포와 시트 자락을 잡고 두손으로 목까지 끌어 올렸다。그런 다음 두발을 뻗으며 반듯이 누웠다。그때 눈물이 조금 나오려고 했지만 어둠속에서 나는 두눈을 크게 뜨고 여 그것을 쫓아 버렸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 Service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Mr. Lee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지수분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89-0609
R) 221-0560 여 정 웅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보 석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Mrs남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846(R) MR. LEE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742-1671 Mr. 유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961-7100

집·방세·하숙

집세놓음 DAVENPORT — OLD WESTON RD
3베드룸, 2화장실
☎: 536-8506

기 타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통역: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
M4A 2R1 ☎: 759-9505(5시이후)만합니다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535-7772 630 BLOOR ST. W. TOR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100% 효과보장
☎: 368-9018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534-1085 김 춘 학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니콘·비데오 센터: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536-7875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서 울 식 품

13일(금) 부터 효력

◎ 무, 배추 $6.50(박스당) ※선물을 드리는 고로 무·배추의 실제가격은 박스당 $3.90정도에 불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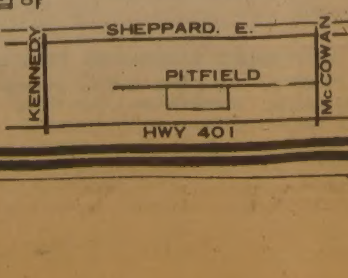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최근일자 기입되어있음		15.00
●오징어젓 Lb.(특별가격)		.80
●김(100장)	19.99	13.90
●강냉이차(500 GR.)	1.69	1.49
●보 리 차(500 GR.)	1.69	1.49

	REG.	SPEC.
●멸 치 젓 Lb.	2.99	1.99
●어리굴젓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20% 할인		
●찹살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젓($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다량입하: 삼양라면, 삼양짜장, 새 칼국수
㉰SALE가격: 스텐레스 다라이(양품) 다량입하

주소: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쥬스바 파타임 헬퍼구함
☎ : 438－0403(오후6시연락바람)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가게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 구함
☎ : (B)532－6143
(R) 532－9638

스토아 헬퍼구함 (일요일)
(시간 : 12시～8시)
☎ : 921－0624(다운타운)

도나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오후 4시～밤1시
☎ : 499－4459

"동업자 구함"
중국음식점. 현재 한국인이 경영하고있음
희망자는 시설비 약2만불 정도. 경험유무는 관계없음
☎ : 656－0483 (오후4시이후 연락바람)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에드몬톤에 위치한 자동차수리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주실 남자분 구합니다.
☎ : 533－2364(Mrs. 김)

FAST FOOD 햄버거 식당에서 일하실 분을 구함 (BRAMPTON 지역) 유경험자를 우선으로 하나 이런 일에 흥미있는 분. 나이트 쉬프트 우대함
FIRE PIT. (HWY 7 & 케네디 로드, 브람톤)
☎ : 456－2828
ASK : PAUL KIM

버라이어티 스토아 남자 헬퍼구함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 4시～8시반까지
39BELSHAW PLACE
☎ : 368－8147

사무실 청소하실분 구함(부부환영)
☎ : 446－1431, 291－7500

매니저 구함
도나스 샵과 햄버거샾을 완전히 맡아서 하실분.(약간 보증금 요함)
대가족 원함. 좋은조건
1468 QUEEN ST. W.
직접내방 요함(Mr. 박)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스토아. 관광지 중심에 오직 하나의 스토아 총매상 : 약 $400,000(2200스퀘어피트). 이층의 4베드룸아파트. 아스킹 : $149,000＋스탁
CALL : BETTY CLEARY ☎ : 1－705－325－6028
가장 바쁜곳에 위치한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스토아
총매상 : 약 $380,000 3베드룸 리빙 QUARTER 가 있는 콘크리트 블럭빌딩＋2베드룸 아파트
렌트 : $245— 우체국 : $11,500
아스킹 : $18,400＋스탁
CALL : IRVIN DEGRAW ☎ : 1－705－325－6069
WATER DEAN REAL ESTATE
107 MISSISSAUGA ST. ORILLIA
☎ : (705)325－6193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벡커 후렌차이스 매매
☎ : 231－1740 MRS. 강

버라이어티 스토아 비지네스
빌딩＋분리된 3베드룸 방갈로 스카보로지역
좋은 인수조건 모게지 알선가능
CALL : BERNIE SEMELHAGO
☎ : 494－1651, 291－9879
MONTREAL TRUST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야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E. LEPAGE ONT. LTD. REALTOR

T. V. 스테레오 최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급 매
매우 깨끗한 2베드룸 아파트와 3베드룸 타운하우스를 저렴한 가격에 급매합니다.
사거나 팔기를 원하시는분은
Ms. 메리 이바타 에게 연락요
☎ : 270－3930
277－2490
MONTREAL TRUST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대단히 성업중인 드라이 크리닝 비지네스를 건강상 이유로 양도코자함.
①금년도 매상 목표액 : $15,000 이상
②금년도 순수익 목표액 : $60,000 이상
☎ : 493－0429 (저녁8시～9시 연락바람)

스토아 급매
멀 안에있는 버라이어티 기프트샵을 급매합니다.
주매상 : 3천2백달러
아스킹 : 3만5천달러
전화 : 223－8805
(MR. 리)

성업중인 레스트랑 매매 :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에 알맞는 도바코트와 GEARY코너의 스토아. 경쟁이 없는지역 1200Feet 렌트에 좋은 OFFER를 줌 ☎ : 535－1750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커피샵 매매
리스 : 17년. 렌트 : 450
월～금 영업 영업시간 8시반～6시
의사빌딩 내에 있음
☎ : 767－4653, 447－9736(Mr. Wong)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 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온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강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삼복식품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한방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함)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보광한약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상담력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대한 격의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럴 병원근처)
전화 : 439－6719 김 남 집

꽃 집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

빅 · 세븐 선물센타

밍크-쇼

40% OFF

교민 여러분을 위한 PRE-**크리스마스 밍크-쇼**를 개최합니다. **최저가격으로 최고급의밍크**를 사실수있는 기회를 드리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영 철 올림

LONDON FOG®

※런던FOG
바바리
SALE

날자 :11월26일(목), 27(금), 28(토)
장소 : 빅 · 세븐선물센타 내(3일간)

빅 · 세븐 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TEL : 533-7966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TAKE A LOOK AT THIS...

PARKER "MATCHBOX" WHITMAN W Action

MA 107 MONOPOLY GAME RETAIL 15.89 NET 8.33
MA 113 SORRY GAME RETAIL 10.99 NET 5.50
MA 135 DESTROY DEATH STAR RETAIL 12.99 NET 5.00
MA 66 GRAND PRIX PLAY VILLAGE WITH CASE RETAIL 11.99 NET 4.50
4248 TIDDLEY WINKS RETAIL 3.99 NET 2.00
P40 SIMPLE OBJECT BINGO 3.99 NET 2.00

MA 47 MATCHBOX CARS RETAIL 2.10 NET 1.05
MA 87 ACE DIECAST CARS 1.19 NET .49
MA 88 ACE DIECAST TRUCKS 1.39 NET .59
P41 LITTLE MISS BEAUTY SET 1.99 NET .75
P42 TUMBLE MOOSE BUGGY 6.99 NET 3.50
P43 RESCUE COPTER 3.99 NET 2.00
P44 BATTERY ACTION TANK 6.99 NET 3.50

ALCAN Bakeking Foilware
P45 DISPLAY CONTAINING 24 EACH OF 3 SIZE FOIL ROASTERS
RETAIL VALUE $179.28 DISCOUNT: LESS 40 + 12½%

Easy Clean Non-Stick
P46 DISPLAY CONTAINING 12 EACH OF 6 TYPE NON-STICK TINWARE
RETAIL VALUE $231.36 DISCOUNT: LESS 40 + 12½%

PHI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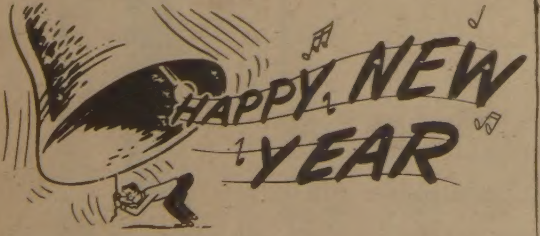
FESTIVE COLOURED BULB DEAL.
ASSORTMENT CONTAINS :-
20 RED 60W — REGULAR NET 89¢
20 BLUE 60W
20 GREEN 60W — SPECIAL 55¢

STOCKING STUFFERS

P47 JIFFY COLOR TRICKS 259 — 75¢
P48 CRAYOLA COLOR RUBS 399 — 75¢
P49 SESAME STREET POSTERS 249 — 50¢
2203 SHEAFFER KALEIDOSCOPE PENS 399 — 2.00

Sellotape

#1405 EX800" RETAIL 1.15 NET 58¢
INVISIBLE MAGIC TAPE



WESTCLOX
12 for 11 on

DEAL A :- PAY FOR ELEVEN — RECIEVE 12 !!
ASSORTMENT CONTAINS :-
1 BIG BEN — 1 HUSTLER
1 BABY BEN — 2 SILVER BELL
2 CHANTILLY — 1 GOOD MORNING FREE
2 NEUCHATEL
2 NAP

DEAL B :-
TRAVEL CLOCK ASSORTMENT :-
4 TOURINO — 3 TRAVALALARM
4 TRAVINO — 1 TOURINO FREE

DEAL C :-
QUARTZ CLOCK DEAL :- EXTRA 20% DISCOUNT ON ASSORTMENT OF 3
1 ASPEN — 1 TREMBLANT — 1 ISOTRONIC

CHRISTMAS PARTY GADGETS DEAL

CONTAINS :- 12 WING CORKSCREWS
12 NUTCRACKERS
12 WAITER CORKSCREWS
12 BOTTLE & CAN OPENERS
DISCOUNT :- LESS 40 + 12½%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Special Christmas Sale

XMAS WRAPPING PAPER

		Retail	Net
MA 802	SINGLE JUMBO ROLL	1.99	.99
MA 803	SINGLE FOIL JUMBO ROLL	2.25	1.10
MA 805	3 ROLL PACK	2.29	1.15
MA 807	4 ROLL PACK	2.49	1.25
MA 808	5 ROLL PACK	2.99	1.50
MA 811	10 SHEETS FLAT WRAP	1.49	.65

* MA 815 1.49 — .70¢
25 JEWEL BOW BAG
* MA 817 1.89 — .95¢
CURL RIBBON DRUM 200'
* MA 820 .75 — .40
XMAS SEALS BOOK
* MA 819 1.49 — .75
JUMBO TAG PACK
* MA 883 1.59 — .80
XMAS PLASTIC TABLE COVERS
* MA 879 2.59 — 1.30
TABLEWARE ENSEMBLE
* MA 948 4.99 — 2.50
XMAS CRACKERS 8½" x 8
* MA 949 1.25 — .59
XMAS CORSAGES

CHRISTMAS GREETING CARDS

			RETAIL	COST
SOLID PACK				
MA 821	CHARMERS	18's	275	125
MA 822	LOVABLES	20's	350	140
ASSORTED PACK				
MA 823	KIDDIE CARDS	12's	350	135
MA 825	WINTER MAGIC	14's	300	120
MA 826	VALU PAC	32's	495	200
MA 827	THOUGHTS OF CHRISTMAS	18's	375	150
MA 828	CHRISTMAS RHAPSODY	18's	495	200
MA 829	CHRISTMAS DELIGHTS	18's	495	200
MA 830	SHRINK WRAPPED	12's	169	85

CHRISTMAS LIGHT SETS

MA 831
MINI 20 LITE SET NET 1.65
MA 836
INDOOR 15 SET SPARKLE NET 5.25
MA 837
INDOOR 15 SET GLO NET 5.25
MA 839
OUTDOOR 15 SET SPARKLE NET 5.95
MA 840
OUTDOOR 15 SET GLO NET 5.95
MA 857
11 LITE STAR TREE TOP NET 3.67

TREE DECORATIONS

		RETAIL	COST
MA 901	ICICLES SILVER 200	59	29
MA 902	" " 300	69	33
MA 903	" " 500	85	39
MA 904	" COLOURS 250	89	43
MA 905	GARLANDS 1 PLY 20'x3" SILVER	159	75
MA 906	" GOLD	159	75
MA 907	" COLOURS	159	75
MA 908	GARLANDS 2 PLY 20'x3" SILVER	259	130
MA 909	" GOLD	259	130
MA 910	" COLOURS	259	130
MA 912	MAKE IT SNOW SPRAY 10oz WHITE	199	100
MA 914	TREE ORNAMENT NOVELTIES	149	75